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중도포럼 2019

중도_{中道}와 과학_{科學} 이 시대의 가치

일시 2019년 10월 12일(토) 13:30~18:00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주최 (사)고요한소리

후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마음공부전문방송 . 유나
www.una.or.kr

고요한소리 Calm Voice Society

고요한소리는 '붓다의 불교, 붓다 당신의 불교를
발굴, 천착, 실천,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행사순서

13:00~13:30	접수 삼귀의, 반야심경 축하공연 [김광석(기타리스트)] 축사 - 원산스님, 일오스님 회장인사 - 사회: 최제용
	중도와 과학 - 이 시대의 가치 [좌장 - 미산스님]
14:00~15:15	발제 법문 활성스님
15:15~15:25	휴식
	토론자 발표
15:25~15:45	1. 불교의 '중도' 개념과 현대과학 사상 [장희익 교수]
15:45~16:05	2. 중도와 뇌 건강 [이경민 교수]
16:05~16:25	3. 중도, 실천이 먼저다 - 팔경도와 명상과학을 통한 중도적 사회 가치 실현 - [미산스님]
16:25~16:35	휴식
16:35~17:40	종합토론
17:40~17:50	중도포럼을 마치며 활성스님
17:50~17:55	사홍서원
17:55~18:00	감사인사
18:00~	저녁공양

차 례

중도포럼 2019를 열며	4
축사	
원산스님	6
일오스님	9
활성스님 법문	
과학과 불법의 융합	12
토론자 발표	
1. 불교의 ‘중도’ 개념과 현대과학 사상장회익(서울대학교 명예교수/경	
2. 중도와 뇌 건강	70
이경민(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중도, 실천이 먼저다	78
- 팔정도와 명상과학을 통한 중도적 사회 가치 실현 -	
미산스님(상도선원 선원장)	
〈고요한소리〉 경전읽기·책읽기 모임 안내	107
마음을 맑게 하는 〈고요한소리〉 도서	109

중도포럼 2019를 열며

2017년 <고요한소리> 창립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중도포럼’을 열었습니다. ‘중도(中道)이 시대의 길’이라는 주제로 인류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중도, 즉 팔정도(八正道)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중도와 종교-다시 돌아보다, 종교’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부처님 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아비담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과학의 역할과 현 주소 그리고 발전 방향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중도와 과학-이 시대의 가치’라는 주제로 중도포럼 2019를 개최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일상화 되고, 유전자 편집 기술로 생명체를 개조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 못지않게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가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 환경오염, 미세먼지, 자원고갈, 생물다양성의 상실, 대멸종 등 숲한 난제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들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나 기업의 거대 자본이 과학 활동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학은 합리주의적 경험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세계를 기술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이 수치화되어 교체 가능한 단위가 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개인과 사회 모두가 과학기술의 등에 업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질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학자는 사실 탐구라는 과학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삶의 가치를 바르

게 세우고,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인류 존속에 위협적인 상황들을 풀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느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할 자원과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최근에 과학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과학자는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 자신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의 시대이자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 과연 과학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인류가 진정 ‘사람다운 사람살이’를 할 수 있도록 향상하는 길은 무엇일까?’ ‘인류는 새롭고 큰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오늘날 온갖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이번 <고요한소리> ‘중도포럼 2019’에서 당면 문제를 직시하고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중도를 통해 과학의 바른 가치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축사

중도포럼 2019를 축하하며

원산스님(통도사 백련정사 회주)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을 좋은 날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고요한소리가 마련한 뜻 깊은 자리에

함께 모인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고요한소리가 2017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기념하여 중도포럼을 열기 시작하여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중도와 관련하여 부처님 일대기를 살펴보면 우리 본사이신 부처님께서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을 부모 인연으로 하여 갑인년 4월 초파일 에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태자의 신분으로 많은 영화를 누리시다가 어느 날 사대문 밖을 차례로 돌아보시고 그곳에서 세간 사람들의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보시고 “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모두 다 고통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있던 태자는 29세에 궁성을 넘어 출가를 하셨습니다. 설산에서 온갖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이 진정한 수행이 아님을 아시고는 니련선

하에서 목욕을 하시고 수자타가 올리는 유미죽을 드시고 기운을 차려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용맹정진 하셨습니다. 용맹정진 중에 마군중이 부처님을 위협하였으나 다 항복 받으시고 35세 납월 8일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처음 설하신 법문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나서 중생들이 귀가 있으나 어두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어두워 보지 못하니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범천의 간절한 권청으로 법륜을 굴릴 것을 결심하십니다. 최초의 설법은 녹야원에서 5비구에게 하셨습니다. 전에 없던 법인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 중도를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중국불교 전통에 따르면 천태天台 지의대사智顓大師가 분류하셨듯이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시고, 그다음 방등경 (유마경, 승만경, 금광명경, 무량수경)을 8년간 설하시고, 그리고 반야부 600권을 21년간에 걸쳐서 설하시고 마지막으로 법화, 열반을 8년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불법의 근본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고 가장 먼저 설하신 초전법륜 아함부에 실려 있습니다. 요컨대 <초전법륜경>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경이라 하겠습니다.

활성스님께서서는 근본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고요한소리>를 설립하시고 30여 년간 이끌어 오셨습니다. 활성스님은 저와 같이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셨던 경鏡자 봉봉자 경봉鏡峰 큰스님의 상좌로 입산하여 큰스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큰스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항시 “한 세상 안 태어난 셈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활성스님께서서는 입산하여 풍부한 사회적 지식과 인맥, 다양한 경험으로 한 때는 종단의 힘든 일을 풀어내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셨지요. 그 후 지리산 깊은 산중에 토굴을 짓고 30여년을 두문불출하며 정진해오고 계십니다. 급기야

중도실상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초전법륜의 가르침인 사제법과 8정도, 12인연을 중심으로 한 근본불교의 입장에서 중도의 이치를 알기 쉽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이변二邊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진리요 불교의 근본적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한소리〉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 시대에 맞도록 새롭게 해석하여 전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처님 원음이 담긴 빠알리 경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힘써왔습니다. 실로 한국불교 풍토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일구월심 노력하시는 활성스님의 원력 앞에 불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숙연함을 금치 못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중도포럼을 경하드립니다. 모쪼록 부처님 가르침이 〈고요한소리〉 활동을 통해 많은 중생들에게 널리널리 전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활성스님 큰 뜻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일오스님(내소사 선원 선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요한소리〉가 창립된지도 어언 30년이 넘었습니다.

〈고요한소리〉가 만들어지기 한 해 전쯤에 활성스님과 범어사 금정선원에서 한 철을 같이 정진할 때 활성스님께서는 근본불교, 즉 부처님 가르침의 가감 없는 본래 모습 그대로를 우리나라 불교에 알리고자 하는 큰 뜻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했지요. 활성스님께서 그러한 큰 원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인연이 모여서 1987년 5월에 드디어 〈고요한소리〉가 설립되었고, 보리수일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영원한 울창이》가 출간되면서 연이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또 빨리어 경전 니까야를 번역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학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소리〉초창기부터 오늘까지 인연을 같이 했음에도 나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부끄러운 처지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활성스님과 〈고요한소리〉가 우리 불교계에 끼친 영향력을 제가 느낀 대로 축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를 가진 바른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태

어나면 그 세상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활성화님이 이 시대, 이렇게 우리 불교계에, 우리 곁에 계심으로써 지금 우리들, 우리 불교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요한소리>가 만들어질 그 무렵에도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경전과 조사어록 위주였고 그것만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아함경은 가장 하근기 사람들에게나 가르치는 차원이 낮은 가르침으로 알고, 위뵈사나를 하는 사람은 외도 취급을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활성화님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가 부처님의 원음이라 할 수 있는 이 근본불교를 우리 불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활성화님 한 분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불교를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4부 니까야가 우리말로 완역되어 나온 지 몇 년이나 되었고 많은 불자들이 니까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많은 스님들이 남방으로 유학을 갔거나 다녀왔습니다. 위뵈사나 선원도 전국 여러 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스님이나 신도들이 위뵈사나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승경전이거나 화두선이거나, 염불수행이거나 초기경전이거나, 위뵈사나이거나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느 쪽이든 바르게 배워 알고 바른 방법에 의한, 바른 정진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본분임을 수행자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삼매도 이루어지고 견해도 생겨나고 신통도 나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까야를 공부하면서 나는 새롭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사 삼매도 얻었고 견해도 있고 신통까지 나탈 수 있다 하더라도, 유

신견有身見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깨달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내가 아니란 것을 통찰하지 않고서는 해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뛰어난 안목입니다. 여기서 나는 오온무아五蘊無我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화성스님께서서는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초기경전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이리라 생각하니 화성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요한소리〉의 법륜, 보리수잎 시리즈에서 많은 좋은 책들이 발간되어 수많은 불자들이 애독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범문하신 소리 시리즈 넷 《지금 여기 챙기기》는 범문 내용이 좋아서 화두정진하는 불자들에게도 좋은 경책이 될 것입니다.

‘중도中道’하면 용수의 중론中論, 즉 팔불중도八不中道 사상으로 굳어있는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에서 이 중도포럼 법회를 통해 팔정도의 중도 가르침을 역설하시는 화성스님의 큰 뜻을 잘 알기에 지지와 응원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중도포럼을 하시는 화성스님의 큰 뜻, 큰 가르침이 널리 우리 불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물러남이 없이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스님도 팔순을 넘어 장로스님의 반열에 드셨습니다. 모쪼록 법체法體를 잘 보살피시어 오래오래 좋은 가르침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한소리〉 불자님 여러분, 특히 회장단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화성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꾸준하게 변함없는 신심으로 많이 노력하신 결과로써 오늘까지 〈고요한소리〉가 이어져 오게 된 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의 노고에 칭찬과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소리〉가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열

과학과 불법의 융합

활성스님

〈고요한소리〉 회주

1938년 출생. 1975년 통도사 경봉 스님 문하에 출가. 통도사 극락암 아란야, 해인사, 봉암사, 태백산 동암, 축서사 등지에서 수행 정진. 현재 지리산 토굴에서 정진 중. 〈고요한소리〉 회주

요약문

서양과학은 안·이·비·설·신 오근에 잡히는 감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불교는 제 육근, 즉 의근意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학자는 모든 현상이 '어떻게 있느냐?'에 관심을 두지만 부처님은 '왜 있느냐?'고 묻는 것이 관심이다. 그 '왜'를 설명하기 위해 불교는 12연기법十二緣起法으로 자체 세계관을 정립하고 있다. 서구의 과학기술이 일으킨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새 윤리도덕의 정립이 필요하다. 의근에 입각한 새 윤리도덕의 밑받침을 세워 불법과 과학의 융합이 이루어질 때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차 례

두 축의 시대
과학과 비과학
<악간나 숫따>는 비과학이다?
부처의 신화화
정定으로 드러나는 세계
감각세계와 삼계
과학과 불법의 조화 가능성
어떻게How와 왜Why
과학이 몰고 온 위기
새 윤리 도덕



언필칭 요즘을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요. 근래 몇 백 년은 서구 인문학이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이 과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시대의 인문학이 또 나오겠지만, 서유럽적 인문학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과학이 지배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학에는 필연적으로 기술이 따르겠지요.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의 시대’는 인류가 과학이라는 사유체계를 통해서 그동안의 비과학 혹은 사이비 합리성의 사유 단계를 초극하고 있다는 역사적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인간 생활의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두 축의 시대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삶에 또 다른 축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佛法 *Dhamma*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과학과는 다르면서 과학과 맞상대가 될 또 하나의 축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과학과 불법,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앞으로 인류의 문화생활이 전개되어 가리라 봅니다.

여기서 ‘불법’은 ‘불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불교’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종교적 의미가 강하지요. 우리가 종교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불교와 구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칭하고자 ‘불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불법은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주의입니다. 과학은 합리주의를 근거로 한 사고방식이지요. 불법도 그렇습니다. ‘불교’와 대비되는 ‘불법’도 그 합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합리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합리적이라면 그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될 것 아니냐? 굳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그간의 형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학과 비과학

과학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탄생했으므로 어떤 문화도 과학이 없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원시 문화에도 나름의 생활과학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환자에게 주술과 무당풀이를 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심령과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양 근대문화의 식견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네들은 자신의 과학만이 정통이고 그 외는 전부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과학’이라든가 ‘유사과학’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지요.

예를 들어 인체 경락을 토대로 한 침술이 병을 너끈히 고쳐도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기들의 ‘합리적인’ 영역 안에 편입시키려 합니다. 즉 과학이라면 마땅히 서구적 논리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 속에 포섭되기 전에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걸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진리라면 편안해야 하는데, 그 문화에서 볼 때 생소한 경락이니 기氣니 하는 건 편치 않아 자신들에게 편안한 체계로 수용하려는 것은 나름 진지한 태도입니다. 그런 대단한 흡인력으로 일체를 자기네 언어로 포섭해 재편성하는 탁월한 능력을 서양의 과학 체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체계 역시 서양과학에서 보면 경락처럼 생소한 개념입니다. 서구의 과학 체계 안에서 불교를 수용하려다 보니, ‘부처님 법이 어느 부분은 과학적이고 어느 부분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논란이 끝없이 전개됩니다. 뭔가 그럴싸하여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힘들어 거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오늘날 불교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서양 불교학의 영향을 일본 불교학자들이 많이 받았지요. 따라서 서양에서 인정하

는 것만 불교의 진리로 이야기하고, 서양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머리를
쓱쓱 긁으면서 ‘이건 인도 전통이고, 동양적 사고방식이고……’ 하면서 ‘익스
큐즈’를 연발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이 대세가 된다면 불법은 과학으로
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불교를 대하게 됐습니다. 물론 태
어나면서부터 불교를 접하기는 했지만, 우리 가정의 전통에서 만난 불교는
불교라기보다 하나의 생활문화였지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불교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출가해서 불교를 공부한답시고 내 땀에는 애도 써봤습니
다. 처음에는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했는데, 첫걸음부터 잘 맞지가 않았습시다. 빼거덕 빼거덕거렸어
요. 내가 근기가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부처님 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가? 고뇌도 많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불교에 많이 나오거
든요. 거기에 대해 ‘옛날 인도 사람들이 미개해서 신화적 사고를 했다’는 식
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한동안 일본서 공부하고 온 분들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
한국 불교의 일본 불교화가 은연중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서구식
으로 불교를 비판하는 태도도 형성되었습니다. ‘서양과학과 불법, 두 체계가
있다’고 하는 과감한 얘기도 이런 형편에 대한 개인적 고뇌의 산물입니다.

〈악간나 숫따〉는 비과학이다?

《장부》에 〈악간나 숫따 *Aggañña Sutta* 起世經〉라는 경이 있습니다. 일종
의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종말을 맞아 인류가 색계 제2천에서 머
물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공중을 훨훨 날아다녀요. 먹는 것은 빼이띠 *pīti* 흄라고 하는데, 기쁨
이 그네들의 음식이에요. 우리는 물, 밥, 고기, 채소 등 무르거나 딱딱한 음
식을 먹는데, 그 하늘 세계에서는 기쁨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에 대해 들어 보셨지요? 우주가 삼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을 통해 욕계가 종말에 이릅니다. 색계, 무색계는 정定의 세계라 물질과는 달라서 종말이 없습니다. 일종의 정신세계입니다. 물질이 다 끝나고 공췌으로 돌아가도 그 세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묘한 대목이 있어요. 물질계가 끝나면 인간은 색계 제1천에 가 있어야 할 텐데 제2천에 가 있어요. 경에 보면 지구가 종말을 맞을 때 색계 제1천까지 같이 붕괴해요. 어째서 정定의 세계인 색계 제1천이 욕계처럼 붕괴해버리는지 궁금하지만 아마도 제1천은 계행의 청정에 의해 욕계를 벗어나긴 하지만 정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색계 제2천 이상만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던 생명체들이 일단 색계 제2천에 가서 생명 자체의 종말을 모면합니다.

이건 중생계의 자비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종말을 모면한 중생들이 깊은 정과 청정을 이루어 능히 그 세계에 살 만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우주의 자비 구조가 존재들을 색계 제2천에 포용하는 겁니다.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의 법칙에 따라 공으로 돌아갔다가 빅뱅 같은 것을 통해 다시 전개 형성됩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펄펄 끓던 용암도 식고 기초 생물들이 출현해서 생명의 진화가 진행되겠지요. 이제 색계 제2천에 피난해 있던 중생들은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 살 자격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일종의 객살이를 한 것이기 때문이니깐요. 이제 사바 욕계가 다시 만들어져 떠날 조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조금씩 이쪽으로 옮겨 옵니다. 이때 우선 가는 곳은 색계 제1천입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색계 제1천이지요. 색계 제1천은 범천왕, 즉 브라흐마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리로 내려와요, 제2천에서 제1천으로.

그런데 제일 처음 내려오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정의 세계는 집단행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집단으로 정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색계 제2천에 있던 한 존재가 제1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 존재가 외롭단 말입니다. 외로움을 탄다는 것 자

체가 이 존재가 진짜 정을 깊이 이루지 못했다는 표시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존재가 제1천에 내려와 외로우니까, '제2천에서는 같이 놀 친구가 있었는데…… 누가 안 오나?' 하고 속 타게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때가 되어 하나씩 내려올 판이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혼자 있던 존재는 '내가 그렇게 원했더니 드디어 하나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을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했더니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창조했다' 라고요. 참 자기중심적 해석이지요.

'내 원으로 저 존재를 창조했다'고 생각한 이 존재는 이제 창조주 노릇을 합니다. 뒤에 내려온 사람들한테 터줏대감 행세를 하지요. '야, 내가 여기서는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내려온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어쩔 줄 모르는데, 누군가 권위 있게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예' 하면서 따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소위 창조주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제일 먼저 내려온 존재가 범천입니다. 불교에서 창조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희극적이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희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도 사실은 지당한 논리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절집에서 정을 많이 닦는 사람들이 대개 고집이 세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아서 아실 거예요. 정이란 게 좋은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도 완성되기 전에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정을 닦은 사람들이 자칭 창조주가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창조란 말 자체가 중생들의 망상입니다. 우리가 창조라 부르는 것도 있는 것을 변형시킨 것뿐입니다. 변형은 하지만 창조는 못 합니다. 애당초 창조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근거 위에 전개된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색계 제1천에서는 여전히 기쁨을 먹고 하늘을 납니다. 그렇게 공기 속에서 사는데 물처럼 부유하는 무언가가 보여요. 물만 해도 기쁨과 비교하면 굳은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짙어서 입에 대봤더니 아주 달콤

한 게 맛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먹기 시작해요. 기쁨을 먹던 몸이, 설혹 그것이 아무리 신선 음식과 같은 것일지라도, 물질적인 것을 먹기 시작하면 몸이 점점 탁해져요. 그 형태가 점점 경직된 것으로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유연하던 몸이 딱딱하고 굳은 몸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의지해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이지요. 탁한 음식에 자꾸 욕심을 부리니, 처음에는 빼이띠라는 천상 음식만 있었는데 그런 음식은 점점 사라지고 탁한 음식만 남아요. 몸도 점점 더 탁한 몸뚱이로 바뀝니다. 사실 이 몸뚱이도 음식 아닙니까? 우리가 먹은 게 몸이지요. 기쁨을 먹는 몸과 탁한 음식을 먹는 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지금의 인간 형체 비슷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망은 자꾸 가지를 쳐서 남녀가 생겨나요. 남녀가 생겼다면 벌써 육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색계에는 남녀가 없거든요.

육계 높은 곳에는 마아라[魔王]의 영역인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을 포함하여 여섯 가지 하늘세계인 육육천六欲天이 있어요. 그 높은 육계천상에도 다 남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계, 아귀계, 지옥계 모두가 남녀의 교합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존재 구조입니다. 이제 욕의 중심이 식욕에서 성욕으로 바뀝니다.

성욕 때문에 육체의 교합을 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천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짓을 하니까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감추고 해야 되겠다 싶지요. 그래서 집을 짓고 그 속에 숨어서 남녀 교합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계입니다. 이제 온갖 욕망이 다 생겨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소유욕도 생겨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악간냐 슛따>에 나옵니다.

부처의 신화화

이걸 놓고 서양과학에서는 ‘신화’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요. 지옥도 있을 수 없고 천상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인간계뿐이고 윤회도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과학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대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 맛 볼 수 있고, 몸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과학입니다. 불교용어로 표현하자면 육근六根,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중에 오근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서양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육근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보면 ‘제근諸根, 여섯 근이 있는데, 여섯 번째로 의근意根, 즉 마노 근*mano indriya*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법을 세우면서 의근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의 인도 사람들은 안·이·비·설·신 오근만 알았지 의근을 포함하는 육근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바라문교에 다 있는 것을 부처님이 빌려 쓰기만 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파니샤드》나 《리그베다》에 그런 이야기는 흔적도 없어요. ‘삼계三界’도 부처님이 세우신 법의 언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의 존재마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을 ‘비슈누의 제7화신’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별 볼일 없는 신으로 끝내버려요. 심지어 아쇼카왕까지도 불교를 옹호한 왕이라 해서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인도 역사를 인도의 문헌과 전통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접근한 서양 사람들도 불교를 보는 눈이 힌두화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양 사람들은 ‘부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지요. 인도인들이 신화화시킨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 ‘불교는 비과학이다, 신화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천오백 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지혜

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고, 부처님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으랴' 이런 식의 방자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과장되었고,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지나친 기대와 찬탄을 보내고 있다는 식이지요. 이와 같은 불교에 대한 '과학적' 편견과 오해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입산해서 <악간냐 숫따>부터 봤다면 바로 덮어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정定으로 드러나는 세계

그런데 제가 <악간냐 숫따>를 덮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게 된 것은, 그나마 선방에 앉아서 참선 한답시고 즐겼던 덕분입니다. 선방에서 즐겼던 사람과 책상에서 불교 교리만 연구한 사람은 불교를 보는 눈이 확 다릅니다. 책상에서 보면 서양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고대인도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았나 보다. 정定이란 데 빠지면 몽롱해져 환상을 사실처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정을 잘못 닦으면 정말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정을 닦으면서 합리성을 세워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정혜 쌍수定慧雙修를 해야 한다'는 말이 진작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정만 닦으면 그야말로 우주선이 되어버려요.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이 팔정도의 맨 끝에다 정을 두고서, '바른 집중, 정정正定은 사선四禪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선이 정의 목표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선은 색계를 이루지요. 색계를 중심으로 삼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경을 살펴보면 '삼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핵심이요 골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삼계를 이해하는 것이 서양과학뿐 아니라 힌두교도, 심지어 후대 불교도들에게도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환과不還果'라고 아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색계 사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색계 사선 중에 일곱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 위의 다섯 세계를

오정거천五淨居天이라 해요. 다섯 정거천, 맑을 정淨 거할 거屠, ‘맑게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을 불환과라고 부릅니다.

삼계론에서는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위에 무색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색계 제4선에서 불환하고, 거기서 열반涅槃에 들어가십니다. 다섯 정거천을 거쳐서 열반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열반은 구경의 목표인데, 어째서 최상위 무색계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고 중간의 색계에서 들어가느냐? 이 대목이 이해되지 않으니 불교학자들이 진땀을 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무색계 정이 최고의 정’이고 ‘상수멸진정想受滅盡定이 해탈解脫’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문으로는 같은 ‘해탈解脫’이지만 빠알리 경에서는 ‘위목카vimokkha’와 ‘위뭇띠vimutti’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색계 정은 위목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정색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열반은 해해탈인 위뭇띠로서 심해탈인 위목카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탈’이라는 같은 말로 써버렸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면서도 뜻은 같다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불교사전도 ‘해탈과 열반이 동일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불필요하게 두세 개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분은 용어 하나하나를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쓰십니다. 부처님은 없어도 되는 말, 군더더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꼭 써야 할 자리에 꼭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쓰십니다. 그래야 법法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과학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학도 대단히 정확하게 말하지요. 언어를 다듬고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편셋으로 집듯이 꼭 요긴한 말을 딱딱 뽑아나가는 게 과학이지요. 하지만 그 점에서 불법은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교의 합리주의입니다. 그 합리성의 측면에서 불교는 과학에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리성에서는 과학과 불교가 공통적이지만, 세계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 과학과 불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각세계와 삼계

과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삼계에 접근하기 힘든 것은, 과학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나 물질세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서구가 금자탑 쌓듯 쌓아온 과학은 정신세계를 접할 때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물리세계를 대하던 자세 그대로 유추해서 연장해 버립니다.

예컨대 뉴턴 과학 체계에서 물리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하고 추구해왔듯이, 정신세계에도 가장 원초적인 무엇이 있다고 상정해 왔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만물의 시초요 근원이요 기본을 이루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았던 것이지요. 서양 종교에서 주장하는 창조주나 절대자도 그런 과학적 세계관과 상통합니다.

이런 한계가 발생하는 것은 서양과학이 안·이·비·설·신 오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과학은 오근에 잡히는 감각세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불교는 합리성의 바탕을 오근에 두는 게 아니라 제 육근, 즉 의근意根에 둡니다. 그래서 감각세계를 뛰어넘는 법계法界와 진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육근의 ‘근根’은 인드리아*indriya*를 말합니다. 제 육근은 마노 *mano*, 즉 의근意根 *mano indriya*입니다. 이것은 법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부처님 법이 전개됩니다. 반면 근과 대비하여 처處라는 말도 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법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의근이 아니라 의처입니다. 처는 ‘장소’라는 뜻이지요. 그 처에 머물러 노는 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장소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처에 주인공 노릇을 하고 노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想 *saññā*이예요. 상想이 있으면 식識 *viññāṇa*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처는 색·수·상·행·식이 노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처를 터base라고 번역하고, 근을 기능func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법을 요해할 수 있는 기능을 의근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산냐가 제멋대로 이해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숫따니빠야》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설하는 이 법을 상想으로 이해하여 식識의 세계로 가고, 그래서 오취온五取蘊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산나想 놀음으로 법을 아무리 이해해 봐야 그건 ‘개밭에 대갈’이라는 거지요. 왜냐? 산나想로는 환幻에 빠지고 식은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나 법은 이미 십만 팔천 리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오히려 아만我慢과 이기심을 키우고 자기중심주의로 간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부처님 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아만 키우기 딱 좋습니다. 어제까지 모르던 것을 오늘 썩 들어서서 보니, 눈이 훨씬 트이고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요. 그리고 남들을 보니까 내가 어제까지 빠져 있던 좁은 울타리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아만을 느끼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심 없으면 공부도 못 합니다. 남하고 경쟁하고 남 이기려는 마음가지고는 절대로 부처님 법 공부 못 합니다.

부처님이 근根이라는 말을 쓰실 때는 산나想가 노는 터에서 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기능에 의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근이 청정하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부처님은 의근을 중심으로 법을 이해하는 체계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으로 세상에 접근하는 과학하고는 분명히 그 대상 영역이 다릅니다. 안·이·비·설·신에 의지해서 세워진 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과 의가 보고 이해하는 영역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에서 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로 형성되는 세계는 법계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근은 법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을 보는 눈과 법계 전체를 보는 눈, 그것이 과학과 불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과학과 불법의 조화 가능성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과학계

에서 고전과학과 신과학을 구별한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신과학에서는 아이슈타인마저도 고전과학자로 치부할 만큼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학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원자 속 소립자 세계를 들여다보면 입자들 사이의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게다가 요사이 과학자들은 입자도 물질로 안 봅니다. 원자를 나누면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것을 또 나누면 숯한 소립자로, 그것을 또 나누면 쿼크 같은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쿼크라는 것도 또 쪼개질 운명이지요.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결국 공허한 것이지요. 에너지 덩어리들이 모인 것, 그걸 우리가 알갱이라 부르는 상황인 것이지요. 내 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손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는 불교의 세상 이해가 양자 과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공’을 존재라 보고, 그게 검은니 붉으니 하는 건 황당한 이야기지요. 이 빈 것을 두고 ‘있다’고 하고, 구별 짓고, 이런 저런 이름을 붙여대는 것 자체가 요술 행위지요. 식과 상이 벗어내는 황당한 세계입니다. 이제 과학이 불교에서 이야기한 ‘무無’, ‘공空’, 인도식으로는 ‘환幻’을 이해할 만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우주 물리학은 ‘암흑 에너지dark energy’나 ‘암흑 물질dark matter’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보다 훨씬 많고 방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96%라는 주장도 하지요.

고전과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실험실에서도 증명될 수 없는 건 실체라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흑 에너지니 암흑 물질이니 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양자역학에서 제기한 불확정성도 서양 사람들에게겐 참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확정된 세계만 살아왔지 불확정의 세계를 자기네 정신세계 안에 수용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것’이라야지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그동안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입자·파동 이중성'을 발견하자, '둘 다 맞다'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불확정성을 수용하지 않고는 과학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불확정이다, 무상無常이다'라고 합니다. 불확정 정도가 아니라 0.001초라도 같은 것은 없다고요. 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 생겨났다는 것은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에 무상이 태동했다는 말입니다.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시작은 변화로부터입니다. 변화가 우주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자역학이 탐구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물질과 정신의 구별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으로 봤지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은 한낱 물질의 그림자일 뿐이라 하여 과학의 대상으로 치지도 않았습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물질의 기반이 애매해지면서 물질을 정신과 딱히 구분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세계도 과학의 대상으로 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학의 변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계의 소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양과학이 '불법이 신화가 아니고 구구절절 진리구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양과학이 오만한 태도를 버리면 과학과 불법과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래 영국의 블랙홀 전문가인 저명한 박사 한 분이 다녀가셨더군요. 신문에 보니 그분은 '과거의 많은 이론이 낡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론도 내일 바로 또 낡은 이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동양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기대를 내비칩니다.

그가 찾고 있는 동양에는 주역도 있고 힌두사상도 있고 별별 사상이 다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과학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것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면서 과학이 메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워줄 것은 불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인슈타인

의 탁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대대로 과학과 불교의 조화를 그려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근에 중심을 두고서 세계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체계는 상부구조이고, 오근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체계는 하부구조이다,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것과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것이 서로가 맞아떨어지면, 어떤 원圓, 또는 구球를 이룰 것이다. 처음엔 들쭉날쭉하다가 점점 충만해지고 팽창하면 드디어 완벽한 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과학과 불법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학이 위를 향해서, 즉 극미시 세계와 극거시 세계를 통해 우주를 보는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겨우 육계, 인간계의 영역을 못 벗어 납니다. 아마도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단계에 이르면 삼계를 받아들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불법에 고개 숙일 겁니다. 왜? 삼계가 다 아니고, 그 위에 다시 해탈, 열반이 있으니까요.

과학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뉴턴은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과거의 것이 되면서 한계를 드러내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진리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결국 과학은 갈수록 부처님 법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밟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불법은 대척 관계를 벗어나 상호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변해가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불법은 상부구조로서 하부구조인 과학을 이끄는 관계를 맺으면서 둘이 결합할 것입니다.

어떻게How와 왜Why

어째서 불법이 위에 있으면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과학을 이끌 수 있는냐? 부처님은 과학자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퀴크냐, 뭐냐?’ 하고 따지는 게 부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학자의 관심사이고, 부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과학자에게는 사물이 어떤 형태로 모양을 지어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운동하느냐가 관심사이지요. 그걸 어떻게 에너지로 활용할 것인가가 과학기술자들의 관심이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있느냐, 왜?’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있느냐’가 과학자의 관심사라면, ‘왜 있느냐’고 묻는 것이 부처님 관심인 것입니다. 그게 기체 덩어리든 에너지 덩어리든 좋다 이겁니다. 왜 존재하느냐? 어찌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불교입니다. 왜?

그 왜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교는 12연기법+二緣起法으로 자체 세계관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12연기에 과학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설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식識과 명색名色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식은 알음알이지요. 명과 색은 그 알음알이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물질적, 정신적 세계입니다. 따라서 명색을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사로잡혀 끝없는 윤회輪廻를 연출하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과학자들이 의존하는 것은 ‘식識’이지요. 식은 끊임없이 명색만 추구할 뿐 본체나 본질은 추구하지 못합니다. 법은 추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불교는 12연기로 그러한 무명의 세계를 논파한 후, 팔정도를 통해 12연기를 역관逆觀함으로써 12연기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해 놓았습니다.

만약 과학도가 과학의 한계를 돌파하려 한다면 팔정도八正道를 닦아야겠지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팔정도니 계율이니 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일이고, 자기들은 분별 놀음만 객관적, 합리적으로 잘하면 된다는 식의 고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과학은 명색의 세계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집 짓는 이여, 내 얼마나 오랫동안 너에게 속아서 윤회의 세계를 헛되이 맴돌았던가.¹

1 ‘Anekajātisaṃsāraṃ, sandhāvissaṃ anibbisaṃ, gahakāraṃ gavesanto, dukkhā jāti punappunam.’ 《법구경Dhammapada》 계송 153 참조.

여기서 집 짓는 이는 12연기의 각 항목들이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요소가 명색입니다. 과학자들이 명색의 세계만 붙잡고 그계 실체인 양 끝없이 매달려 있는 한 연기의 소멸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왜'를 물음으로써 그 연기의 세계를 벗어나는 자유를 얻으려는 겁니다.

철두철미 '왜'를 묻는다는 점에서 부처님은 '공췌'만을 얘기하는 철학적 사변도 넘어섭니다. 모든 것을 환이나 공으로 보는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지금 인간이 고히를 겪는 실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부처님은 설혹 '환幻'이나 '공' 덩어리일지언정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대로 인정하십니다. 엄연히 그런 존재가 있어서 기막힌 고히를 겪고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없다면 고가 생길 리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불변으로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현재 고히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게 고성제菩聖諦입니다.

부처님 진리는 고성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열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고히를 진리의 제1항으로 세우고 문제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아주 실존적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정을 닦거나 고히를 함으로써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부처님도 출가해서 처음 찾은 분들이 알라라 깔라마와 웃다까 라마 뵈따라는 정수행자들이지요. 그분들이 닦은 게 무색계정 중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과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라는 것이었지요.

비상비비상은 네와산나 나아산나 *nevasaññānāsaññā*인데, 여기서 아산나 *asañña*는 '상 없음'을 뜻합니다. 색계 제4선천 중의 무상천無想天的 그 무상입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을 달리 번역하자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상이 없으니까 상이 아닌데, 또 상 없음도 아니다 그게 무색계 제일 높은 정에 이른 경지입니다.

그 앞이 무소유처인데, '있는 바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니, 즉 무이지요. 그러니 존재론적으로 무소유처정의 무, 거기에 대해서 인식론적으로 비상비비상처정의 무상 또는 무무상입니다.

오늘날 철학도 ‘유’와 ‘무’ 속에서 헤맬니다. 유를 주장하다 무로 가버려요. 그런데 왜 유나 무를 못 벗어나느냐? 우리의 식 놀음 때문입니다. 식을 가지고 세상만사를 재고 앉았으니까 결론은 거기밖에 못 가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지요. 인류가 진리를 규명해 들어가는데 결국은 식의 한계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식을 ‘요술쟁이’라고 비유했어요. 부처님은 식의 정체를 본 것이고, 식의 한계선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안 넘어서신 분이 요술쟁이라는 말은 못 하지요. 그리고 식을 넘어서서 당신이 제시한 게 반야般若 *pañña*입니다. ‘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반야로 진리에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반야는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알고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성제四聖諦에 반야가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고품를 말씀하시고, 고의 멸을 말씀하십니다. 왜? 존재가 어찌니 존재의 멸이 어찌니 하면 벌써 식 놀음에 빠져버립니다. 관념에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또 헤매는 거지요. 오늘날 과학과 철학도 내내 식 놀음에서 맴 돌아요. 식을 벗어날 길이 없고 유와 무를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정작 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주 현상 하나하나를 낱개의 대상으로 해서 제행諸行的 차원에서만 구분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현상들을 법의 정연한 체계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의 우주론인 삼계와 맞닿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반야*pañña*라는 말은 ‘진일보하는 지혜’입니다. ‘행行으로부터 법法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게 반야인데, 그 반야의 방향으로 과학적 지식 추구가 나아가야 하리라 봅니다. ‘어떻게’를 넘어서 ‘왜’를 묻는 반야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오근에 머물고 있는 과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만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몰고 온 위기

불법과 과학이 둥근 구처럼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구의 고전적

과학기술이 일으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고어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냈지요? 불편해요, 진실을 직시하기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진실을 일깨우는 기후변화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면 받아들이 수밖에 없지만, 실상은 전부 인간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정말 불편하지요. 내가 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야박하고 분명하게 과보로 다가오니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이 ‘불편하다’는 말을 서양 사람이 썼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들여다보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무책임해요.

오늘날 사막이 점점 확장되어갑니다. 애초에는 인류가 육체, 근육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썼지요. 그 다음에 불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불은 나무를 땔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꾸 땁니다. 결국 숲이 없어져 버리고 황무지가 됩니다. 황무지를 방치하니 사막이 됩니다. 인간이 에너지를 이용할 만큼은 지능이 발달했는데, 그 에너지가 자연 순환하도록 할 만큼은 지혜가 발달하질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지혜가 어정쩡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어정쩡한 지혜가 일부 지역의 사막화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총체적 파멸에 이르기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놀라운 칼을 만들었습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조금만 잘못 스쳐도 피가 나고 목숨도 잃습니다. 칼이 너무 잘 드는 게 큰 우환입니다. 게다가 그 칼 쥔 사람의 머리는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유치하고 어리석고 치졸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 혼란이 몰고 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거친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자연과 상생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지요. 왜 자연을 파괴하게 됐느냐?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가 과학을 끌고 있습니다.

과학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학의 방향성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을 위해서 가장 거대한 자금을 투자한 곳은 바로 미국 펜타곤이에요. 펜타곤이야말로 오늘날 과학의 방향을 결정지은 가장 큰 책임자입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 과학기술이란 게 적을 무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로 치달았어요. 핵무기를 누가 개발하고 왜 개발했어요? 컴퓨터는 누가 개발했어요? 국방성이 투자한 결과로 오늘날 핵무기와 컴퓨터 문화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이니 과학기술이 자기 몸 파괴하고 이웃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게 된 겁니다.

결국 '파괴로 가는 과학기술 문화를 어떻게 제어해서 창조 쪽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 윤리 도덕

그런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윤리 도덕과 가치관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새로이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윤리 구조입니다. 윤리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주가 형성되고 파멸되는 것도 자연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윤리·도덕적 현상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을 만큼 타락이 보편화되고, 그 속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고 아라한阿羅漢 arahant이 나올 수 없게 되면 우주가 괴멸합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팽창과 수축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 사바세계 인간들이 너무나 잘못하면 우주가 괴멸한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얘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겉만 보면 이 사바세계는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고 돌맹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지·수·화·풍이 움직이는 배경에 작용하는 기본 원리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 윤리 도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있어서 윤리 도덕이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윤리 도덕 질서를 구현하다 보니까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을 구현

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의意*mano*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파괴를 멈추고 올바른 방향을 취하게 하려면 우주관과 인간관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맞추어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은 계속 파괴 행위를 하면서 자연더러는 ‘사막화되지 말라’, 핵은 만들면서 ‘지구는 깨뜨리지 말라’, 이산화탄소는 뿜어내면서 ‘온난화는 없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주의 중심입니다. 인간은 업 짓는 존재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업을 짓지 않습니다. 인간이 업을 짓는데 무엇으로 업을 짓느냐? 업을 짓는 게 바로 의意입니다. 신·구·심身口心 삼행은 12연기의 순관順觀에 그쳐 고힬의 증장에 기여할 뿐이지만 신·구·의身口意 삼업은 역관逆觀의 주역이 되어 고힬를 멀하게 됩니다. 행行에는 수受와 상想이 포함되지만, 업業에는 의업意業이 포함됩니다. 이를 상업想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업心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를 통해 업을 짓고, 그 업이 우주를 좌우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 선업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업을 짓자면 팔정도를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과학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팔정도八正道를 벗어나면 인류에 재앙이고 파멸이에요.

과거의 윤리 도덕은 부처님 법의 진리성을 아는 것이었다기보다는 세상살이에 편한 지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윤리 도덕에 기반을 둔 과학이 오늘날 경천동지할 대변혁의 시대에 인류의 세상살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서양 사람은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이기적인 문화적 능력을 살려서 최대한 합리주의를 고양시켜 나가겠지요. 거기에 반해 동양은 서양과는 다른, 나름의 문화적 강점을 키워서 오히려 서양문화를 포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자비와 지혜, 중국적 가치로는 인仁과 의義, 이런 것은 인류가 가진 덕성 중에 최상품의 덕성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선용하여 우주적 윤리 구조에 인간 삶을 맞추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동양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한국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

리라는 뜻입니다. 어설픈 반 양키 되라고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법은 과학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이 법은 삼계와 해탈을 이야기하고 열반을 목표로 하는 엄청난 체계입니다. 진리 중에 최상층이에요.

이 부처님 법은 입이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육체 놀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가 아니라 근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근을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근, 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 특히 의근에서 우리는 대단한 문화적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 키워야 앞으로 인류를 이끌 새 윤리 도덕의 밑받침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과 과학의 융합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생에 한국에 태어난 보람을 찾고, 그 근기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보겠다는 원을 다짐하기 바랍니다.

포럼 좌장

미산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백양사에 출가한 이래 전통 교학과 수행에 전념해왔다.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공부한 후 더 넓은 현대불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스리랑카와 인도를 거쳐 초기불교 연구의 중심지인 옥스퍼드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상도선원 선원장이며, KAIST 명상과 학연구소 소장이다. 힘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맑고 향기로운 삶으로 안내하며 수행불교와 실천불교를 뿌리내리는 일에 정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을 위한 자비명상 프로그램인 하트 스마일 명상을 계발하여 누구나 일상에서 자비 행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서와 공저로는 《초기경전 강의》《마음》《행복》《자비》, 역서로는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호흡이 주는 선물》 등이 있다.

토론자 발표 1

불교의 ‘중도’ 개념과 현대과학 사상

장 회 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경희대학교 초빙교수

미국 루이지아나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0여 년 간 서울대학교 물리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경희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물리학 교육과 연구 이외에 과학이론의 구조와 성격, 생명의 이해, 동서학문의 비교연구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저서로는 『과학과 메타과학』, 『삶과 온생명』, 『물질,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공부 이야기』,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등이 있고, 지금은 충남 아산에 거주하며 자유로운 사색을 통해 통합적 학문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요약문

초기불교의 중도와 무아 그리고 공의 의미를 경전의 사례들을 통해 간단히 정리하고, 중국 삼론종에서 본 중도의 의미를 《대승현론》에 제시된 사중이제(四重二諦)와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과학에 나타난 중도와 공의 개념을 검토한다. 특히 사중이제(四重二諦)와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개념을 현대과학의 공간 개념 발전 과정과 연관하여 논의하고, 다시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의미를 현대과학의 물질 개념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불교의 무아(無我) 개념을 현대과학의 온생명 이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해 본다.

차례

들어가는 말

I. 초기불교의 중도와 무아 그리고 공의 의미

1. '중(中)에 의한다'는 것
2. 중도(中道)란 무엇인가?
3. 무아(無我) 개념과 그 용례
4. 공(空)의 의미와 그 용례

II. 중국 삼론종에서 본 중도의 의미

1. 《대승현론(大乘玄論)》에 제시된 사중이제(四重二諦)
2. 《대승현론(大乘玄論)》에 제시된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III. 현대과학에 나타난 중도와 공의 개념

1. 사중이제(四重二諦) 관점으로 본 현대과학의 공간 개념
2.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의미와 현대과학의 물질 개념

IV. 온생명 관점에서 살펴본 아(我)와 무아(無我)의 의미

1. 온생명이란 무엇인가?
2. 온생명 관점에서 보는 '나'의 의미
3. 온생명 관점에서 보는 '나'와 불교 경전의 '나'

V. 맺는 말

들어가는 말

불교의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중도(中道)’ 개념은 사물에 대한 표피적 관념을 벗어나 그 내면에 담긴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대 과학의 탐구방식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도 개념을 통한 불교에서의 가르침과 과학에서 거두어낸 성과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을 것임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이러한 유사성을 그 일부나마 파악해낸다면, 이는 곧 불교와 과학에 두루 통하는 하나의 보편적 탐구의 길이 있음을 의미할 것이며, 이를 활용해 불교와 과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의 중도 개념을 현대과학 사상에 연관시켜보려는 시도는 자칫 불교 사상과 과학 사상 모두를 왜곡시킬 위험성 또한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불교계와 과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표피적 이해를 통해 그 유사성만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양쪽 영역에 두루 통용될 새 개념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측의 사유가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며 장기적 연구가 요청되는 일이겠기에, 여기서는 하나의 시안으로서 불교와 과학에 나타난 중도의 사례들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보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불교에서의 중도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 이에 해당하는 현대과학의 사례들이 있는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나간다. 그리고 중도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 공(空) 개념과 무아(無我) 개념이 현대과학과 어떤 의미에서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도 조명키로 한다.

I. 초기불교의 중도와 무아 그리고 공의 의미

일반적으로 폭넓게 쓰이는 중도(中道) 개념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 중(中), 중도(中道), 무아(無我) 그리고 공(空)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된 그러나 구분 가능한 일련의 개념 틀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다시 연기(緣起)와 팔정도(八正道) 등의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렇기에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기 위해 초기 불교에서 이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용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1. ‘중(中)에 의한다’는 것

불교의 초기 경전에는 ‘모든 것이 있다’[有]는 주장과 ‘모든 것이 없다’[無]는 주장이 모두 부적절하다는 설명을 위해 중(中)의 개념을 사용하는 용례가 있다.

깟짜야나여,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이 두 극단으로 가지 않고 여래는 중(中)에 의해 법을 설한다.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하여 행(行)이, 행을 조건으로 하여 식(識)이,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名色)이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육입(六入)이, 육입을 조건으로 하여 촉(觸)이, 촉을 조건으로 하여 수(受)가, 수를 조건으로 하여 애(愛)가, 애를 조건으로 하여 취(取)가, 취를 조건으로 하여 유(有)가, 유를 조건으로 하여 생(生)이, 생을 조건으로 하여 노사(老死), 우비고뇌(憂悲苦惱)가 생겨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無明)의 남김 없는 소멸로부터 행(行)의 소멸이, 행의 소멸로부터 식(識)의 소멸이, 식의 소멸로부터 명색(名色)의 소멸이, 명색의 소멸로부터 육입(六入)의 소멸이, 육입의 소멸로부터 촉(觸)의 소멸이, 촉의 소멸로부터 수(受)

1 이 논의의 주된 흐름은 한상희, 2019, <초기불교의 중도와 무아, 그리고 공>, 《공과 중도 개념의 쟁점》(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의 기초를 따랐다.

의 소멸이, 수의 소멸로부터 애(愛)의 소멸이, 애의 소멸로부터 취(取)의 소멸이, 취의 소멸로부터 유(有)의 소멸이, 유의 소멸로부터 생(生)의 소멸이,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老死), 우비고뇌(憂悲苦惱)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²

이 경전에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리키며, 반면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은 모두 허상이어서 아무 것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지적한 것인데, 이 두 견해는 모두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므로 여기서 벗어나야 함을 설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것을 바로 “중(中)에 의해” 설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中)’이란 무엇인가? 이는 곧 이러한 극단을 피하는 지혜를 의미할 것인데, 이는 기계적으로 가운데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너머에 있는 더 큰 이치를 깨우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위의 경전에서는 12연기라는 모습으로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치를 통해 이를 일깨워주고 있다. ‘있다’는 것에만 매여서는 ‘소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없다’는 것에만 매여서는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하여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하면서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된다고 하면서, 무명에서 벗어남 곧 깨우침에 이르는 것이 최상의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중(中)에 의한다는 것은 곧 깨달은 눈으로 본다는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경전 이외에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경험한다’라는 견해와 ‘남이 만들고 남이 경험한다’라는 견해가 두 극단임을 말하면서 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한 사례가 있고, 또 ‘생명이 곧 신체이다’라는 견해와 ‘생명과 신체는 다른 것이다’라는 견해가 두 극단임을 말하면서 이들에서 벗어

² SN. II. 17. 한상희(2019, 8쪽)의 번역에서 약간의 표현을 바꾼 것임. 같은 내용은 《상윳따니 까야》(각목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016) 낫짜나곳따경(Kaccānagotta-sutta) (2.142~144쪽)에도 나옴.

나는 것 또한 ‘중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한 사례가 있는데, 이들에서도 모두 무명의 소멸을 통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³

2. 중도(中道)란 무엇인가?

경전에는 또 중도(中道)를 언급한 곳이 있으며, 또 직접 “중도(中道)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대답을 제시한 사례가 나온다.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 해서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저급하고 천하고 속되고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적 삶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않고 여래가 완전히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앓을 만드는 것이며, 걱정과 뛰어난 지혜와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여래가 바르게 깨닫고 눈을 만들고 앓을 만드는 것이며, 걱정과 뛰어난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귀한 여덟 가지 길[八正道]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다.⁴

여기서 보다시피 앞의 ‘중(中)에 의한다’는 사례가 주로 관점의 치우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깨달음에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하면, 중도(中道)의 사례와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수행의 방식과 그 지침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한다. 조금 달리 이야기하자면 중도는 중을 통해 깨달은 자가 가지게 될 지혜의 내용과 이른바 팔정도(八正道)로 대표되는 바른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매번 수준 높은 독자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3 한상희, 2019, 11~15쪽.

4 SN. V. 421. 한상희(2019, 15~16쪽)의 번역에 따름. 같은 내용은 각묵스님(2016) 초전법륜경(Dhammacakkappavattana-sutta)(6.384~385쪽)에도 나옴.

견지함으로써 깨달음의 상태를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의 내용 속에는 만물이 무아(無我)임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공(空)임을 알게 되는 것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들을 말해주는 용례를 찾아보자.

3. 무아(無我) 개념과 그 용례

일반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적 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무아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제 붓다가 초기에 무아를 설하여 다섯 비구를 해탈로 이끌었다는 《무아상경(無我相經)》의 내용을 살펴보자.

비구들이여, 색(色)은 무아(無我)이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이 색이 자아라면 이 색은 고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렇게 되기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기를’이라고 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고통으로 이끌어지고,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렇게 되기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기를’이라고 해도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수(受)는 무아이다... 상(想)은 무아이다... 행(行)은 무아이다... 식(識)은 무아이다...⁵

諸比庫，色無我！諸比庫，假如此色是我，此色則不應導致病惱，於色可得：‘願我的色是這樣，願我的色不要這樣！’ 諸比庫，正因為色無我，所以色會導致病惱，於色不可得：‘願我的色是這樣，願我的色不要這樣！’ 受無我！...想無我！...行無我！...識無我！...

5 SN. III. 66-67. 한상희(2019, 22~23쪽)의 번역에 따름. 같은 내용은 각목스님(2016) 무아의 특징경(Anattalakkhaṇa-sutta) (3.236~237쪽)에도 나옴.

여기서는 생멸변화의 바탕을 이룬다는 오온(五蘊)의 다섯 요소 즉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이들이 모두 무아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예컨대 색이 자아를 가진다면, 즉 무아가 아니라면,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특히 고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색이 무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첫째 자아 즉 아(我)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둘째 무아 즉 아가 없더라도, 오히려 아가 없기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많이 동떨어진다. 우리는 아가 없으면 고통 받을 리도 없을 것이며 설혹 아가 있더라도 자기의 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아란 무엇인가? 무아라는 말 곧 anattā (Pali)와 anātman (Sanskrit)은 자아를 뜻하는 attā(또는 attan)와 ātman에 부정 접두사 ‘an’을 붙여 나온 말이다. 이들 개념은 본질, 호흡, 영혼 등의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우빠니샤드에서 말하는 영원불변, 상주불멸하는 자아란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온 안에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변하고 영원한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아는 오온 뿐 아니라 육내입처(六內入處) 등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이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나’라는 집착을 일으켜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오온이 무아(위에 말한 의미)이고 ‘나’가 오온이라면 그 ‘나’가 진정한 의미의 무아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 첫째는 ‘나’라는 말을 하는 이상 ‘나’를 인정하는 셈인데, 그런 ‘나’에게 무아를 적용시킨다면, 아(我)=무아(無我)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나’가 오온이 아니라면 위의 경전이 말한 무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우선 경전에서는 ‘나’와 오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왓차곳따 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왔차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는 색(色)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 나를 색(色)을 지닌 자로, 나에게 색(色)이, 색(色)에 내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수(受)를 나로 간주하지 않고...상(想)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행(行)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식(識)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식(識)에 내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⁶

이는 곧 오온과 ‘나’가 무관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명제 곧 오온이 무아라는 것과 오온을 자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결합시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를 단순한 존재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위에서 지적한대로 ‘나’와 ‘무아’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이며 그렇다면 경전의 가르침 안에서 이러한 것이 언급될 이유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은 이해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온을 자아로 여기면서 이것이 영구불변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진정한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깨우쳐 주려 한다는 것이다.

설혹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아직 오온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자아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즉 오온과 무관하게 오직 주체로서의 자아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자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난다 경에는 이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만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왓차곳따 유행승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왓차곳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여쭙었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런데 자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자아는 없습니까?”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왓차곳따 유행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왓차곳따 유행승이 나간 지 오래지 않아서 세존께 이렇

6 각목스님(2016) 왓차곳따 경(Vacchagotta-sutta) (5.159~160쪽)의 번역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음.

게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왓차곳따 유행승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난다여, 왓차곳따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상주론자(常住論者)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편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난다여, 왓차곳따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단멸론자(斷滅論者)인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편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아난다여, 왓차곳따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법들은 무아대[諸法無我]’라는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왓차곳따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미 미혹에 빠져있는 왓차곳따 유행승은 ‘오, 참으로 이전에 있던 나의 자아가 지금은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더 크게 미혹하게 되었을 것이다.”⁷

이 이야기에서 붓다는 자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묻는 왓차곳따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다. 물음의 성격상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임에도, 붓다는 오히려 묻는 이의 정황을 고려하여 ‘그렇다’라고도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이냐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가지 답변이 다 불완전한 것인데, 어느 한 쪽의 대답을 한다면 듣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한 편견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온이 무아라든가, 내가 오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면서도 자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중도의 길을 널리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7 SN. IV. pp.400~401; 각목스님(2016) 아난다 경(Ānanda-sutta) (5.164~167쪽)의 번역에 따름. 단 각목스님 번역본의 영속론자를 학계의 관행에 따라 상주론자로 바꾸었음.

무아 또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양면성을 이해하기 위해 무아를 ‘실천적 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⁸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법들은 무아다[諸法無我]’라는 주장은 실천적 무아이며, 이것이 붓다의 주된 관심사이다. 반면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물음은 형이상학적 자아에 관한 물음이며 붓다에게 이는 사실상 부차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굳이 이것에 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타의 많은 물음에서나 마찬가지로 중도의 지혜로 대처함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위에 인용된 아난다 경의 이야기는 붓다가 이러한 중도의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무아 또는 자아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현대과학 특히 온생명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를 뒤에 나올 제IV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4. 공(空)의 의미와 그 용례

이러한 무아의 개념은 다시 공(空)의 개념에 이어진다. 무아와 공의 관계를 말해주는 경전의 한 사례로서 붓다와 아난다 사이의 다음과 같은 문답을 살펴보자.

“세존이시여, ‘세상은 비어있다, 세상은 비어있다’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도 대체 어떤 점에서 세상은 비어있다고 합니까?” “아난다여,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은 비어있다고 한다. 아난다여, 그러면 무엇이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는가? 아난다여, 안(眼)은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다. 색(色)은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다. 안식(眼識)은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다. 안촉(眼觸)은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다... 이 의촉(意觸)을 조건으로 하여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

8 임승택, 2018, <실천적 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자아와 무아: 오해와 진실》(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있다. 아난다여, 자아 혹은 자아에게 속한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세상은 비어있다고 한다.”⁹

여기서 보면 ‘비어있다’는 것 즉 공(空)이라는 개념은 무아 곧 ‘자아가 비어있다’는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아가 없다면 그것이 있다고 여겼던 자리가 비어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일러 공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범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위에 언급된 안(眼), 색(色) 등 육근(六根) 뿐 아니라 안식(眼識) 등 육식(六識) 그리고 안촉(眼觸) 등 육촉(六觸) 그리고 이를 조건으로 하여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조차도 그 자아가 없으므로 비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만유에 해당하는 모든 것(法)은 그 성품으로 보면 다 공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모든 현상은 인연소생(因緣所生), 즉 인(因)과 연(緣)이 가적(假的)으로 화합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我)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초기 불교의 제법무아(諸法無我)의 사상에서 모든 존재물(存在物)에는 자체(自體), 실체(實體)가 없다고 하는 일체개공(一切皆空) 사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특히 대승경전인 《반야경(般若經)》과 용수(龍樹, 나가르주나)가 저술한 《중론(中論)》 안에 잘 반영되고 있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즉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한 마다 속에 잘 요약하고 있으며, 《중론》에서는 제24장 <관사제품(觀四諦品)>의 “인연소생법(因緣所生法”이라는 계송(偈頌)을 통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여러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나는 이것을 무(無)라고 말한다.

또한 가명(假名)이라고 말하며, 중도(中道)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단 하나의 법(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9 SN. IV. 54, 한상희(2019, 25~26쪽)의 번역에 따름. 같은 내용은 각목스님(2016) 공한 세상 경(Suññataloka-sutta) (4.183~184쪽)에도 나옴.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¹⁰

衆因緣生法	我說即是無
亦為是假名	亦是中道義
未曾有一法	不從因緣生
是故一切法	無不是空者

II. 중국 삼론종에서 본 중도의 의미

초기 불교에서 대승 경전과 중관(中觀) 학파로 이어진 이러한 중도 개념은 중국의 삼론종(三論宗)에 이르러 더욱 정교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인도의 중관(中觀) 학파가 중국에 전래되어 이루어진 삼론종(三論宗)에서는 특히 길장(吉藏, 549-623)의 저서로 알려진 《대승현론(大乘玄論)》에서 중도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도 사중이제(四重二諦)와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¹

1. 《대승현론(大乘玄論)》에 제시된 사중이제(四重二諦)

《대승현론(大乘玄論)》에는 앎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세상에서 통용되는 앎을 세제(世諦)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한층 심층적인 앎을 진제(眞諦) 혹은 제일의 제(第一義諦)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여 이제(二諦)라 부르는데, 이러한 이제가 네 개의 층위에 걸쳐 형성된다고 하는 이른바 사중이제(四重二諦)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0 《中論》大正藏 T30n1564.

11 이 논의의 주된 흐름은 이병욱, 2019, 〈중국불교에서 바라본 공과 중도〉, 《공과 중도 개념의 쟁점》(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의 기초를 따랐다.

저쪽은 단지, 유(有)를 세제(世諦)로 하고, 공(空)을 진제(眞諦)로 삼는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유(有)와 공(空)을 모두 세제(世諦)로 하고, 비공비유(非空非有)라야 비로소 진제(眞諦)라 부르게 됨을 밝힌다. 셋째 단계에서는, 공(空)과 유(有)를 이(二)라 하고 비공유(非空有)를 불이(不二)라 칭할 때, 이(二)와 불이(不二)는 모두 세제(世諦)이고,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를 진제(眞諦)라 부르게 된다. 넷째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이제(二諦)가 모두 가르침(敎門)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셋이 불삼(不三: 진제가 아닌 셋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 더 이상 기댈 것과 얻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참 이치(理)라고 불리게 된다.¹²

他但，以有爲世諦，空爲眞諦。今明，若有若空皆是世諦。非空非有始名眞諦。三者，空有爲二，非空有爲不二，二與不二皆是世諦，非二非不二名爲眞諦。四者，此三種二諦皆是敎門。說此三門，爲令悟不三，無所依得始名爲理

2. 《대승현론(大乘玄論)》에 제시된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또 《대승현론(大乘玄論)》에는 이러한 이제(二諦)를 각각 설정해내는 지혜를 이제각명중도(二諦各明中道)로, 그리고 이러한 이제를 현명하게 결합해내는 지혜를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로 부르면서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생비불생(非生非不生)은 이미 중도(中道)이다. 생(生)이면서 불생(不生)이므로 가명(假名)이다. 가명으로서의 생(生)을 생(生)이라 말할 수 없고 불생(不生)이라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세제중도(世諦中道)가 된다. 가명으로서의 불생(不生) 또한 불생(不生)이라 말할 수도 없고 불생(不生)이 아니라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진제중도(眞諦中道)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각론중도(二諦各論中道)이

12 《대승현론(大乘玄論)》 제1권(卍續藏經 79권, p.595上)

다. 하지만 세제(世諦)의 생멸(生滅)은 무생멸(無生滅) 생멸(生滅)이고, 진제(第一義)의 무생멸(無生滅)은 생멸(生滅) 무생멸(無生滅)이니, 무생멸(無生滅) 생멸(生滅)이 어찌 생멸(生滅)일 수 있으며, 생멸(生滅) 무생멸(無生滅)이 어찌 무생멸(無生滅)일 수 있으리오? 그래서 비생멸(非生滅) 비무생멸(非無生滅)은 각각 이 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가 된다.¹³

然非生非不生 既是中道, 而生而不生 卽是假名. 假生 不可言生 不可言不生 卽是世諦中道; 假不生 不可言不生 不可言非不生 名爲眞諦中道. 此是二諦各論中道. 然世諦生滅, 是無生滅生滅; 第一義無生滅 是生滅無生滅. 然無生滅生滅 豈是生滅; 生滅無生滅 豈是無生滅? 故非生滅非無生滅 各二諦合明中道.

이제 이렇게 규정된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가 앞에서 설정된 사중이제(四重二諦)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이제합명중도에서 생(生)과 비생(非生)이라 한 것은 사중이제에서의 유(有)와 공(空) 개념에 대응된다. 그러니까 사중이제에서 “유(有)를 세제(世諦)로 하고, 공(空)을 진제(眞諦)로 삼는다[以有爲世諦, 空爲眞諦]”라고 한 것은 비생비불생(非生非不生)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제합명중도에서는 이것을 이미 중도(中道)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제가 유(有)만을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유(假有)로 보아 공(空)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면 이는 이미 중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반대로 진제 또한 공(空)만을 내세우지 않고 최소한 가유(假有)로서의 유(有)를 인정한다면 이 또한 일정한 중도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각각 이제각론중도(二諦各論中道)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제(二諦)는 중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바탕은 여전히 세제와 진제에 두고 있어서 엄정한 의미의 중도에는 아직 달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제는 ‘진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세제’여서 진정한 세제일 수 없고, 진제 또한 ‘세제의

13 《대승현론(大乘玄論)》 제1권(卍續藏經 79권. pp.603下~604上)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제'여서 진정한 진제일 수 없으니, 이 둘을 완전한 하나로 엮는 중도 그것이 바로 이제합명중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앞에 소개된 사중이제(四重二諦) 구조는 네 단계에 걸쳐 점점 심화되는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필 네 단계냐 하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진행은 굳이 네 단계에 그쳐야 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선종에서는 이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무문관》의 제25칙 〈세 번째 앓은 사람이 설법하다〉에는 “대승의 가르침은 4구(四句)에서 벗어나고 백비(百非)를 벗어난 것이니, 살펴 듣고 살펴 들으시오.”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흔히 사구백비(四句百非)라 하는데, 백번을 부정해도 역시 부족하다는 의미이다.¹⁴ 그러나 사중이제론에서도 이를 몰랐을 리 없지만, 같은 논리를 무한히 되풀이한다는 것은 무모할 뿐이므로, 넷째 단계에서 나머지 모두를 아우르는 최종적 진리의 가능성 곧 “더 이상 기댈 것과 얻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참 이치(理)”라는 언설로 대변되는 목표치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대승현론(大乘玄論)》에 제시된 사중이제(四重二諦) 구조를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와 결합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도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에 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1 단계:

유(有): 세제(世諦), 공(空): 진제(眞諦)

2 단계:

유'(새로운 유와 앞의 공 포함): 세제, 공'(새로운 공): 진제

비공'비유'(非空'非有'):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3 단계:

유”(새로운 유와 앞의 공' 포함): 세제, 공”(새로운 공): 진제,

비공”비유”(非空”非有”): 이제합명중도

14 이병욱, 2019, 156쪽.

4 단계:

이들은 모두 우리가 찾은 상대적 진리이다.

참 이치는 오직 가능성만으로 남아있다.

III. 현대과학에 나타난 중도와 공의 개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도(中道)의 논리 그리고 이를 확장한 공(空)의 논리는 그 자체가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한다기보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는 인간 사고에 대한 메타적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적용범위에는 어떤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고의 패턴이 과연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교적 전통 못지않게 치밀한 사고와 논리를 적용해 나름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낸 현대과학에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으리라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현대과학 특히 그 기반을 이루는 물리학의 바탕 관념 구성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사중이제(四重二諦)의 논리가 시공간 개념의 전개 과정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논의한 후, 다시 공(空)이라는 개념이 사물의 구성 물질을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중이제(四重二諦) 관점으로 본 현대과학의 공간 개념¹⁵

현대인들은 거의 누구나 공간이 3차원 구조를 가졌음을 쉽게 동의한다. 그러나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고전역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평방향의 평면과 수직방향의 높이를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했다. 지평면

15 이 장의 논의는 주로 장희익, 2019, 《장희익의 자연철학 강의》, 서울: 청림(추수밭), 제2장, 제3장, 제4장에 바탕을 두었다.

을 구성하는 수평방향의 평면 위에서도 동서남북의 구분은 있었지만 이는 지형지물 등 우연적인 여건에 기인하는 것일 뿐 원천적으로 모든 방향이 대등하다는 생각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이를 나타내는 아래 위쪽 방향은 무거운 물체를 떨어지게 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평방향과는 원천적으로 구분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굳이 현대의 차원 개념에 맞추어 말한다면 수평방향의 평면은 2차원 공간을 형성하며 수직방향은 이와 독립된 별도의 1차원 공간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 만에 근거한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공간 개념이다.

사실 이러한 일상적 공간 개념과 고전역학을 통해서 얻게 된 3차원 공간 개념은 자연의 ‘실재’를 반영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진 바탕 관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관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묻게 되는 물음의 성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 공간 관념을 취할 경우,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런 현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것이 왜 안 떨어지느냐?”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실제로 중세의 동아시아 유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고민을 해 왔다.¹⁶

반면 우리가 일단 3차원 공간 개념을 수용하게 되면,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된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은 원천적으로 대등한 것인데, 왜 유독 수직 방향에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다. 이것이 바로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라는 유명한 뉴턴의 물음이다. 그리고 뉴턴이 이 물음에 대해 흡족한 해답을 제시했기에 오늘 우리는 3차원 공간 개념을 어렵지 않게 수용하고 있다.

이제 이 상황을 《대승현론(大乘玄論)》에 나타난 중도(中道)의 개념과 연결해 해석해보자. 실제로 우리가 지닌 일상적 공간 개념을 세제(世諦)라 하고 고전역학 이후의 3차원 공간 개념을 진제(眞諦)라 할 때, 이것이 사중이제(四重二諦)의 제1단계 즉 “유(有)를 세제(世諦)로 하고, 공(空)을 진제(眞諦)로 삼는다.

16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 중기 유학자 여헌 장현광의 『우주설』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장희익, 2019, 제1장 참조.

[以有爲世諦, 空爲眞諦]에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有)’는 수직 방향의 공간이 “물체를 떨어지게 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다[有]”는 주장에 해당한다면, ‘공(空)’은 “그러한 성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非有], 혹은 그러한 성질의 자리는 비어있다[空]”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한 성질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假有]**에 해당하므로 이를 세제중도(世諦中道)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성질이 본질적으로는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나타나므로 이를 단순한 비유(非有)가 아니라 **숨겨진 비유[假非有]**로 볼 수 있기에 이것을 진제중도(眞諦中道)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제(世諦)와 진제(眞諦)가 모든 면에서 대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2차원+1차원 관점으로만 보던 것을 3차원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이해의 폭을 한 차원 넓힌 새로운 깨달음에 해당한다. 세제(世弟)에 대비해 진제(眞諦)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단계에서는 이 둘이 합하여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를 형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대과학에 나타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한 단계의 이제(二諦)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곧 “유(有)와 공(空)을 모두 세제(世諦)로 하고, 비공비유(非空非有)라야 비로소 진제(眞諦)라 부르게 됨을 밝히는”[若有若空皆是世諦, 非空非有始名眞諦]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론인데, 여기서는 기존의 상식적 공간 개념뿐 아니라 3차원 공간 개념마저도 가유(假有) 곧 겉보기 관념의 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한 단계 뛰어넘는[비공비유(非空非有)] 4차원 시공간의 개념이 좀 더 적절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곧 사중이제(四重二諦)의 둘째 단계이다.

이 둘째 단계를 유(有)와 공(空)의 관점에서 풀이해보면, 앞 단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3차원 공간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有]** 있었던 것인데, 새 관점에서 보면 이것마저도 공간의 한 성분일 뿐 그 독자적 내용이 **비었다[空]**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유(有) 안에는 이 시간의 개념과 함께, 앞 단계에서 진제라 생각했던 3차원 공간 개념이 포함되며, 새로운 공(空)으로서 4차원 시공간이 새로운 진제(眞諦)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대등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간의 한 축을 실수(實數)에 대응시킨다면 시간 축은 허수(虛數) 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만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다시 비공비유(非空非有)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두 관점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에 이르게 된다.¹⁷

현대과학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셋째 단계의 사중이제 곧 양자역학을 통한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자역학 이전의 단계에서는 4차원 시공간 이외에 이와는 별개로 4차원 에너지-운동량 공간이 있는[有] 것으로 상정해왔던 것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독자적인 공간이 아니라 4차원 시공간이 지닌 또 다른 측면 즉 이것의 푸리에(Fourier) 변환 공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 또한 시공 개념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중이제의 셋째 단계에 맞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둘째 단계에서의 공(空)인 4차원 시공간과 4차원 에너지-운동량 공간이 새로운 유(有)로 떠올라 모두 세계(世諦)를 구성하게 되고, 이들과 구분되는 4차원 겹-공간이 새로운 공(空)이 되어 진제(眞諦)로 떠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4차원 겹-공간이라는 것은 푸리에 변환으로 연결된 4차원 시공간과 4차원 에너지-운동량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4차원 겹-공간이 이런 특별한 관계로 엮어졌다는 점에서 기왕의 세계와 여전히 관계를 맺는 것이기에 다시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¹⁸ 현대과학의 공간 개념 확장에 관한 이러한 도식은 앞 장 말미에 소개한 사중이제(四重二諦)의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구도 도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며, 이는 불교적 직관과 현대과학의 사고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한 사례가 된다.

17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유(有)와 앞 단계에서의 유(有)는 그 내용을 달리 한다. 앞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상하 차원의 존재를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독자적인 시간 차원의 존재를 의미한다. 사중이제(四重二諦) 본문에서 말하는 유(有)가 이러한 해석상의 융통성을 허용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이를 허용한다면 과학에서의 상황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학에서의 상황을 수용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유(有)'의 해석에 대한 이러한 단서는 아래 논의할 양자역학에도 적용된다.

18 양자역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매우 새로운 것이며, 현재로는 장희익, 2019, 제4장에만 그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현대과학의 공간 개념이 여기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넘어 더 높은 단계의 진제,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현대과학에서는 한층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또 실제로 추구하고 있다. 단지 아직은 모색 중이어서 이렇다 할 성과가 공인되고 있지는 않다.

흥미롭게도 앞에 소개한 사중이제(四重二諦)론에서는 이 넷째 단계에서 또 하나의 상대적으로 진전된 합명중도를 제시하기보다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수용된 세 단계의 이제(二諦)가 모두 우리가 설정한 상대적 진리 즉 ‘가르침[敎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아직 진정한 진리[理]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유(有)’가 발생하지 않을 완결된 경지에 이르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꼭 넷째 단계에서 이루어질 보장은 없으며,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무한히 열린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현대과학 또한 이것의 성취를 궁극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을 뿐, 그 어떤 손쉬운 완성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

2.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의미와 현대과학의 물질 개념

우리가 앞에서 본 사중이제(四重二諦) 논의에 공(空)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했지만, 이는 대체로 유(有)에 대한 상대적 개념, 더 정확히는 유를 넘어서는 비유(非有)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반야심경》과 용수(龍樹)의 《중론》, 그리고 선종의 중심사상에 자리 잡고 있는 공(空)의 개념은 이를 훨씬 넘어서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일체개공(一切皆空)’이란 말이 그것인데, 《반야심경》에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과학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적어보면,

$$\text{색(色)} = \text{공(空)}, \quad \text{공(空)} = \text{색(色)} \quad (1)$$

이 된다. 이것을 도대체 과학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한

동어의 반복만으로 보지 않으려면 이 언어 속에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숨겨진 항 α 를 도입해볼 것을 제안한다.

$$\text{색(色)} = \text{공(空)} + \alpha, \quad \text{공(空)} = \text{색(色)} - \alpha \quad (2)$$

이렇게 할 때 이 α 라는 항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있는 여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각각의 색(色)이라는 것은 기본 바탕인 공(空)에 각각의 연기가 덧씌워져 나타는 현상이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 색에서 이 연기를 다 제하고 나면 기본 바탕인 공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2)식에서 이 숨은 여건 α 를 제외하고 읽으면 바로 (1)식이 말해주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 나오며 이를 일러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 부르게 된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과학 속에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 해석할 수 있는 면모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가장 간단한 사례로 물의 경우를 보면, 그 형태가 액체인 물뿐 아니라 고체인 얼음이 있고 기체인 수증기도 있다. 이것을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물, 얼음, 수증기가 모두 각각 서로 다른 색(色)에 해당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들은 모두 H_2O 분자들의 서로 다른 모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공통 요소인 H_2O 분자들을 공(空)이라 부른다면 위의 (2)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text{색(色)} = \text{공(空)} + \alpha$$

형태가 되며, 여기서 α 는 주변의 온도를 비롯한 내외의 여건 곧 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α 를 제외하고 “물은 H_2O 다”, “얼음은 H_2O 다”라고 말하며, 또 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지만 “ H_2O 는 물이다”, “ H_2O 는 얼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H_2O 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 H_2O 또한 또 하나의 색(色)이라고 보아야 옳다. H_2O 뿐 아니라 각양각색의 분자들이 모두 색이며 이들을 이루는 공통의 요소인 원자들을 상대적으로 공이라 칭할 수 있다. 이 분자들은 모두 이 원자들로 구성되며 오직 이를 구성하는 여건 α 만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한 걸은 더 나간다면 원자들 또한 그 자체가 공(空)이 아니라 다른 더 기본적인 입자들이 서로 다른 여건에 의해 얽혀

이루어진 구성물 곧 색(色)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바탕 곧 진정한 의미의 공(空)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직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직 몰라 그렇지 있다고 상정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색(色)은 이 진정한 공(空) 위에 각양각색의 α 들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곧

$$\text{색(色)} = \text{공(空)} + \alpha_1 + \alpha_2 + \alpha_3 + \dots$$

형태로 적을 수 있으며 여전히 α 들을 빼고 읽으면 “색즉시공(色卽是空)”이 된다. 마찬가지로 α 들을 빼고 말하면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공(空)은 현대과학이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는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우주의 최초 이른바 대폭발(Big Bang) 당시,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공(空)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alpha_1, \alpha_2, \alpha_3 \dots$ 들이 붙어 오늘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IV. 온생명 관점에서 살펴본 아(我)와 무아(無我)의 의미

우리가 앞(I-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아(我)와 무아(無我)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我), 무아(無我) 개념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대과학 특히 온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나[我]’의 개념 또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온생명에서 보는 ‘나’의 개념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아(我) 혹은 무아(無我)의 개념과 일정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 점은 학문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학문 특히 과학이 담고 있는 개념들은 사물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지만, 삶의 지향성 문제에 대

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이것이 삶의 주체인 ‘나’와 관련이 될 때는 곧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문제는 생명의 이해라는 과학적 관심의 주제와 관련이 되면서도 또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실천적 과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는 먼저 현대과학 특히 온생명 이론에 나타나는 ‘나’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아(我)와 무아(無我)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엄격히 말하면 ‘나’라고 지칭되는 개념은 하나의 주체가 주체로서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에, 주체의 주체성을 논의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는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소관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나’ 개념은 생명 그리고 특히 생명의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기에 이에 관련된 현대과학의 시각을 벗어날 수도 없다. ‘나’라는 관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며 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하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인데,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모두가 헛된 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현대과학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중심과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며, 그렇게 추구해 얻은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온생명’이다. 사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온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친숙한 개념이 아니기에 그 간단한 개요부터 소개하려 한다.¹⁹

1. 온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여러 물체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살아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된다. 이때 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교성’의 차이이다. 정교성을 가늠할 한 가지 척도는 이들을 모두 그 구성 입자 단위로 흩어놓고 임의로 휘젓는다고 할 때 우연적인 재결합에

19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장희익, 2014,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서울: 한울) 또는 장희익, 2019, 제7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해 이들이 얼마나 쉽게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흩어진 흙덩이 하나가 다시 흙덩이로 복원되기는 쉽지만 흩어진 고양이 의 몸이 우연히 재조립되어 산 고양이로 되살아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까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정교한 대상들이 어떻게 해서 출현 하게 되었느냐를 알아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체축매적 국소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소질서’라 함은 제한된 시공간 영역을 점유하는 구분 가능한 물질적 구성체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자체축매적 기능을 지닌 국소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단순 국소질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축매적 기능이라 함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과 닮은 또 하나의 존재가 손쉽게 형성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 자신과 모든 면에서 닮은 국소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국소질서를 말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지닌 국소질서를 자체축매적 국소질서라 한다.

이러한 자체축매적 국소질서가 최초로 우연히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어떤 주어진 여건 아래서 자체축매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교성을 이미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정교한 국소 질서가 오로지 우연 만에 의해 출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연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체축매적 국소질서 하나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가능하며, 지구의 긴 역사 과정에서 최소한 몇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으리라 상정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단 비교적 단순한 자체축매적 국소질서가 우연히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기대 수명 안에 같은 종류의 국소 질서를 적어도 하나 이상 생성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하면) 이러한 국소질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을 생성할 소재가 소진되든가 혹은 이들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지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대략 소멸되는 만큼만 더 생겨나게 되어 이후 그 숫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일단 이러한 자체촉매적 국소질서의 개체군이 출현하여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를 통해 이보다 한 층 더 높은 정교성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자체촉매적 국소질서가 변이과정을 통해 출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거듭 거듭 겹쳐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걸쳐 예컨대 수 억 번 되풀이된다면, 우리가 토끼나 고양이에게서 보듯 매우 높은 수준의 정교성을 지닌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국소질서들의 이러한 자체촉매적 기능은 그 자체의 성격 만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촉매’라는 말이 잘 함축하고 있듯이,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어떤 큰 과정 안에서 이를 ‘돕는 구실’을 하는 것일 뿐, 빈 공간 속에서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체촉매적 국소질서와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전체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 우주 안에는 국소질서들을 담을 수 있는 두 종류의 ‘질서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이 안에 단순 국소질서들만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1차질서 체계’라 부르며, 다른 하나는 이 안에 자체촉매적 국소질서들이 포함되어 위에 언급된 방식으로 그 정교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경우로서, 이를 ‘2차질서 체계’라 부른다.

한편 한 자체촉매적 국소질서 개체가 자체촉매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수명 안에 1번 이상의 자체촉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생존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존의 유지와 자체촉매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이 지닌 자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모해야 하는데, 이는 곧 외부로부터의 자유에너지 유입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²⁰ 따라서 이러한 자체촉매적 국소질서들을 함유하는 2차질서 체계는 그 안에 자체촉매적 국소질서들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킬 물질적 소재 뿐 아니라 이들에게 공급할 자유에너지의 원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한 개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또 그 (자체촉매적) 기능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2차질서 체계의 나머지 부분에 결정적으로 의존

20 이것은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인 열역학 제2법칙이 요구하는 상황이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굳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자에 대해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면 하나하나의 개별 자체축매적 국소질서들보다는 이러한 2차질서 체계 전체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개별 자체축매적 국소질서들은 생명에 관련된 그 어떤 기능도 독자적으로 수행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2차질서 체계를 직접 ‘생명’이라 부르기 보다는 이를 기존의 ‘생명’ 개념과 구분하여 ‘온생명(global life)’이라 부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²¹ 이는 기존의 생명 개념과 이렇게 차별화함으로써 이 새 개념을 통해 생명의 본질적 성격을 한 층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생명 개념에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자체축매적 국소질서’에 대해서는 이를 ‘날생명’이라 하여 ‘생명’으로서의 그 제한된 의미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의 날생명은 하나의 2차질서 체계인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이 함께 할 때에 한해 생명으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온생명의 이 나머지 부분을 이 날생명의 ‘보생명’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하나의 날생명은 그 보생명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생명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 온생명 관점에서 보는 ‘나’의 의미²²

이러한 생명 안에는 과학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물들이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 서로 섞이고 변형을 이루어낸다면 점점 더 정교한 존재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심오한 물리학 법칙으로도 그 안에서 ‘주체로서의 나’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나는 ‘나’라는 주체를 엄연히 의식하고 있으니, 이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²¹ 장희익, 2019, 제7장.

²² 여기서의 논의는 대체로 장희익, 2019, 제8장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은 이를 기존의 객체적 현상들과 같은 반열에 놓인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현상 그 자체의 이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숨겨진’ 속성으로 보는 관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모든 객체적 현상의 모습을 이것이 지닌 외적 혹은 표면적 속성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현상의 내부에서 파악의 주체가 나타나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게 되는 내적 혹은 이면적 속성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은 실체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가 나타내는 두 가지 양상, 곧 ‘객체적 양상’과 ‘주체적 양상’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설혹 주체적 양상 아래 주체적 삶을 영위하더라도 이로 인해 외면에 해당하는 객체적 세계가 사라지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결과는 객체적 세계를 통해 나타나고, 객체적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고 이를 누구에게 전달하려 해도 내 두뇌 속에 있는 신경 세포 조직이 이를 수행해 내고, 이를 다시 내 목덜미와 혀의 운동으로 바꾸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킴으로써 상대방이 감지할 수 있는 음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제약 아래 있기는 하나, 우주 내의 한 사물에 해당하는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은 그 나름으로 엄연한 사실이며, 이 둘이 양립한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혹 우리의 의지 자체가 이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질서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해도, 일단 이것을 ‘나라고 느끼며 나로서 살아가는 한, 나 아닌 다른 무엇일 수는 없다. 사물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우주 안에 물리적 법칙에 따르지 않는 그 무엇도 없으며 따라서 물질 일원론을 펼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주체로 행세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일부를 내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인간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나’가 굳이 어떤 제한된 범위의 실체 곧 ‘내 몸’과 연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내 의식이 내 몸에 국한된 신경조직망을 통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의 활동을 통해 보

호해야 할 대상이 '내 몸'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경조직망은 외부의 정보도 입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개별 신체를 넘어서기도 함을 지각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다시 아울러 '집합적 주체'인 '우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곧 '너와 나'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신의 주체성을 확장하여 '너'를 '나와 구분되는 존재'로만이 아니라 더 큰 '나'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의 주체 곧 '나'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작은 나'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과의 관계를 인식함에 따라 '더 큰 나'로 그리고 '더욱 더 큰 나'로 내 주체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게 된다.

실제로 인간 각자의 주체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의사를 소통함으로써 각자가 서로를 각기 자기의 주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주체적 연결을 통해 하나의 '집합적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인간은 이러한 집합적 주체를 통해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왔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문명이다. 이러한 문명을 통해 인간은 다시 자신의 집합적 주체를 심화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인간의 집합적 주체 안에 담겨 있던 자아의 내용은 '인류' 곧 생물종으로서의 인간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인간은 인간을 제외한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을 '자연'이라 부르며 이를 오히려 인간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오랜 기간 자연 속에서 자연을 극복 혹은 활용해가며 인간의 자리를 넓혀 가는 것을 발전이라 여기고, 이러한 발전을 문명이 지향할 주된 지표로 삼아 오기도 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합쳐 비로소 생명이 이루어지는 온생명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인류 단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온생명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온생명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체이며 또 나에게게는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에 '더 큰 나' 속에 온생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단지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넘기 어려운 심정적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가 내 몸을 '나'라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미 심정적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본능의 발현이란 측면이 더 강하다. 그렇기에 설혹 우리의 지성이 온생명 또한 내 몸의 일부임을 말해주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길들여진 심정적 자세는 자기도 모르게 이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러한 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온생명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는 곧 우리 온생명이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는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존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일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 온생명은 약 40억 년 전 우리 태양-지구계를 바탕으로 태어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존 그 자체만을 수동적으로 지속해 온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출현과 함께, 이들의 집합적 지성에 힘입어, 40억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식하며 이 의식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존재로 부상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삶'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보자. '삶'이란 한마디로 '생명의 주체적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만일 주체가 없다면, 현상으로서의 생명의 일부는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삶'을 가졌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는 '나' 속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어떠한 의미의 삶을 사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내 몸'으로서의 '나'를 의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불가피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가장 작은 '삶' 곧 소인(小人)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인류'로서의 '나'를 의식하는 것은 전통적 윤리에 부합되는 '삶' 곧 군자(君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온생명까지 담긴다면 이는 대인(大人) 또는 성인(聖人)의 삶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요소를 주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배합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며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개체로서의 '나'와 공동체로서의 '나' 그리고 더 크게 온

생명으로서의 ‘나’가 동심원적으로 배열된 가운데, 어느 ‘나’에 어떠한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 각자의 특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온생명 관점에서 보는 ‘나’와 불교 경전에서 보는 ‘나’

이제 온생명 관점에서 보는 ‘나’와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나’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보았다시피 불교 경전에서는 ‘나’ 자체에 대한 직접적 논의보다는 왜 ‘무아’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의 성격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 아(我)를 가진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으며, 특히 고통을 없앨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무아(無我)의 증거라는 것이다. ‘나’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현대의 우리가 보는 ‘나’, 그리고 온생명 관점이 인정하는 ‘나’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이 ‘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이를 수행해낼 역량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주체적 삶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전의 ‘나’는 이러한 역량이 무제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의 우리 관점에서는 그러한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더라도 여전히 ‘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점에서는 무아(無我)나 유아(有我)나 하는 것이 사실의 규정문제라기보다는 아(我)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통을 당하기에 아(我)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아(我)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아(我)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까지 부상되고 있었던 고대 인도의 아트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아(無我) 사상이 가진 진정으로 중요한 면모는 바로 이러한 ‘나’를 부정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무아 사상 안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한 중요한 요소가 부정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무아 사상이 부정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대상은 개체 생명으로서의 ‘나’, 좀 더 정확히는 개체 생명으로의 ‘나’를 전부로 여기는 그 생각 자체를 의미한다. 온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생명은 오히려 온생명이며 낱생명은 그저 온생명을 바탕으로 하여 잠시 조건부적으로 머무는 것인데, 이를 생명의 전체로 보아 과도하

게 집착할 경우 모든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도로서 깨우침을 얻어 이 작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진정한 무아(無我) 사상의 본질이며, 이 점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온생명을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나'로 생각하는 현대과학의 관점과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온생명 관점에서는 온생명을 위주로 한 여러 단위에서의 '나' 즉 동심원적으로 조화된 '나'의 의미를 긍정하고 이 안에서 삶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데에 반해, 불교 경전에서는 이 작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는 데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차이일 뿐 그 본질에서는 크게 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 강조점을 온생명에 두고 이를 진정한 '나'라고 할 경우 자연스럽게 낯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초래하는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고, 반대로 강조점을 무아(無我)에 두어 낯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의미의 삶 곧 온생명을 지향하는 삶으로 그 중심점을 옮겨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전에서 '자아'의 존재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온생명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일 자아의 존재를 긍정한다면 이는 자칫 '개체로서의 나'만을 자아로 보는 일상적 관념에 대한 긍정으로 비치면서 낯생명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온생명 관점에서도 '온생명적인 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붓다가 우려했듯이 주체적 삶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온생명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도 중도의 체계를 발휘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살리는 동시에 더 큰 깨달음 곧 자신이 온생명이라는 깨달음에 이를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전에 나오는 붓다의 자세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온생명에 대한 어떤 직관적 깨달음에 바탕을 두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개념이 실제로 현대과학 사상 안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과학 안에 중도의 개념이 반영된 것이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과학 자체의 독자적 발전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중도의 방법 혹은 중도의 지혜라는 것이 종교의 영역에서 그리고 과학의 영역에서 진리를 깨우쳐 가는 근원적 방식임을 각각 독자적으로 입증해 내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로 무관한 두 영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한 메타 진리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메타 진리 자체의 신빙성을 그 만큼 더 높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해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우쳐 가는 매우 유력한 방법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하며, 바로 이 점은 우리 시대에 각별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오늘 우리는 놀라운 기술문명을 이루어내었음에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기술문명으로 인해, 우리 생존의 바탕 여건이 붕괴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되돌려 바른 삶의 길을 찾아나갈 진정한 지혜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원인은 경전의 오래된 가르침이나 현대과학의 새로운 조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깨우쳐 나갈 올바른 방법론과 적절한 지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우침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의 바른 이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우침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몇몇 선각자들이 아무리 외쳐본들 쇠귀에 경 읽기 밖에 되지 못한다.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러한 깨우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깨달음의 방법론 곧 중도의 지혜이다. 이 방법론의 신빙성을 이제 불교에서 뿐 아니라 과학에서 함께 입증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긴급한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이병욱, 2019, 〈중국불교에서 바라본 공과 중도〉,《공과 중도 개념의 쟁점》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임승택, 2018, 〈실천적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자아와 무아: 오해와 진실》(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상희, 2019, 〈초기불교의 중도와 무아, 그리고 공〉,《공과 중도 개념의 쟁점》(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장희익, 2019, 《장희익의 자연철학 강의》, 서울: 청림(추수밭).
- 장희익, 2014,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서울: 한울.

기타 SN(*Samyutta-Nikāya*)

- 《상윳따니까야》 각목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016
- 《중론(中論)》
- 《대승현론(大乘玄論)》

토론자 발표 2

중도와 뇌 건강

이 경 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신경생물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 취득. 현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요약문

서양에서 유래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뇌의 구조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뇌에 관한 많은 단편지식들이 축적되었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지식들을 통합하여 좀 더 큰 관점에서 뇌의 작동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연구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뇌 신경세포를 조절하여 기억이나 감정 등 뇌 기능을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뇌과학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드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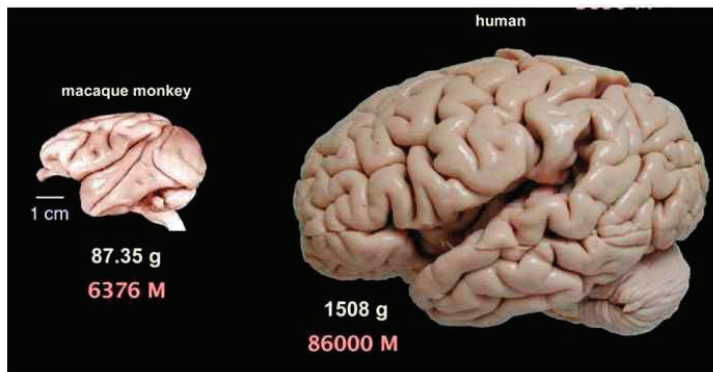
중도와 과학 - 이 시대의 가치 -

〈 뇌 이야기 〉

이 경 민 M. D., Ph. D.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뇌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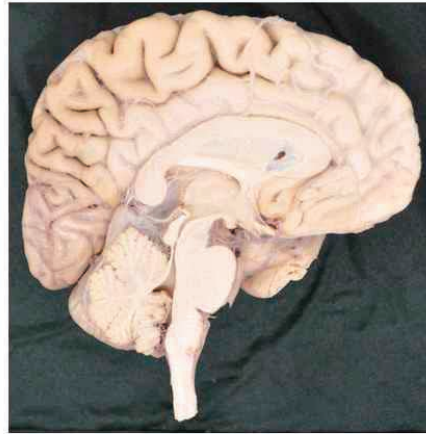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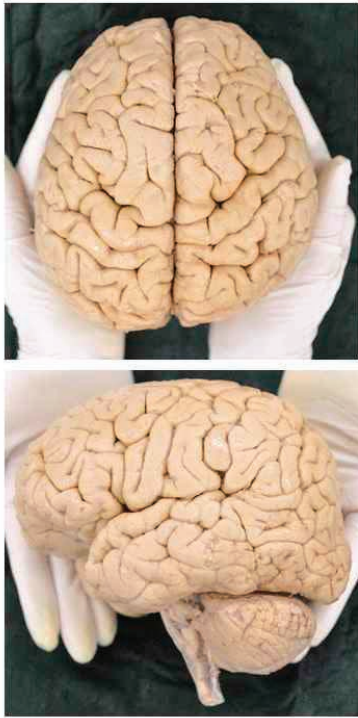


- 피질신경세포 분화 촉진 유전자 (ARHGAP11B) 발현
-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뇌 크기의 증가

Herculano-Houzel. 2009, Front. Hum. Neurosci.

Florio et al., 2015,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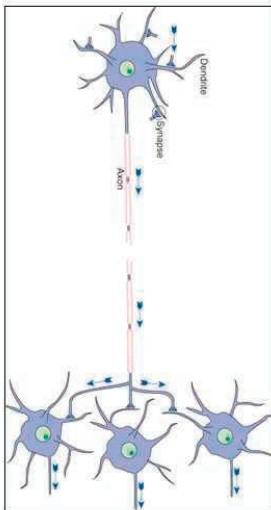
Gonzalez-Forero and Gardner, 2018,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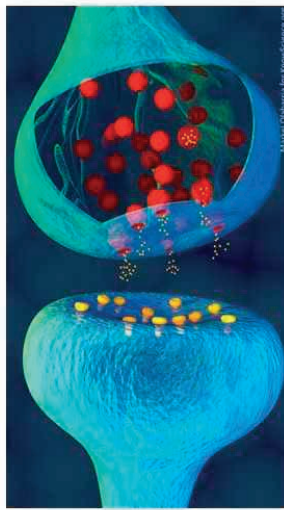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신경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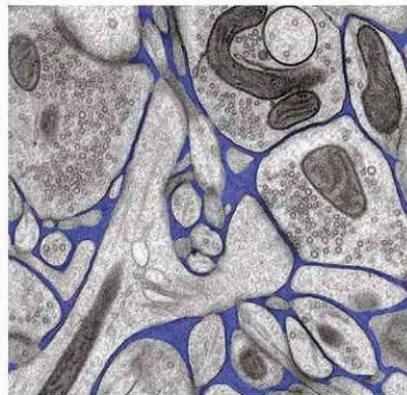
신경연접 (시냅스)



Nolte: *The Human Brain*



Modified image
of Markel Olabarria



Nicholson et al., 2017, *Biophysical Journal*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사성제 (四聖諦)

고
집
멸
도

사념처 (四念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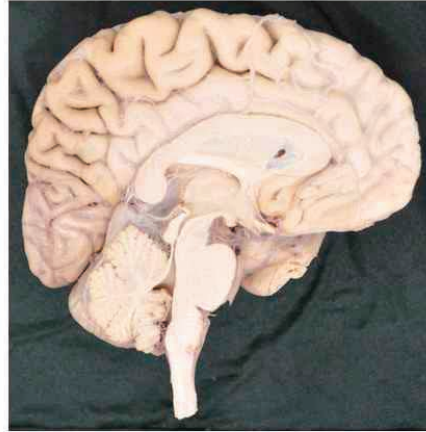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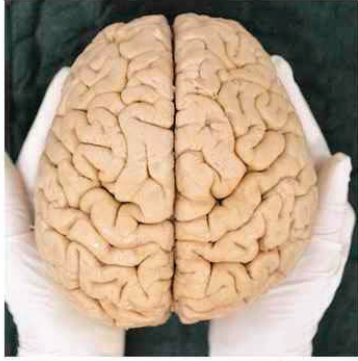
신
수
심
법

팔정도(八正道)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 마음챙김(mindfulness)
정정(正定)
- 주의/집중(at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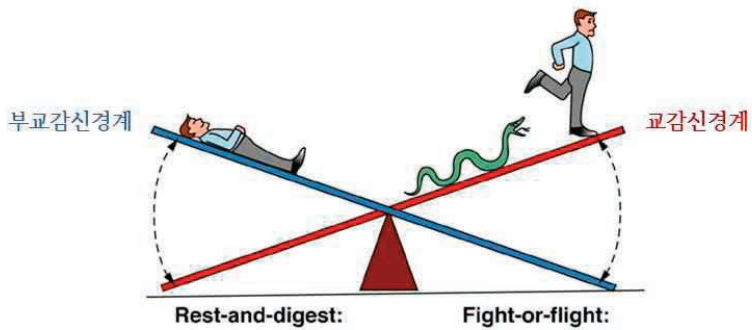
주의/집중(Attention)

-지속적 주의(sustained attention)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분리 (배분) 주의(divided attention)
-교대 주의(alternating attention)
-마음챙김(mindfulness)
: an attentive non-judgmental focus on present ("here and now")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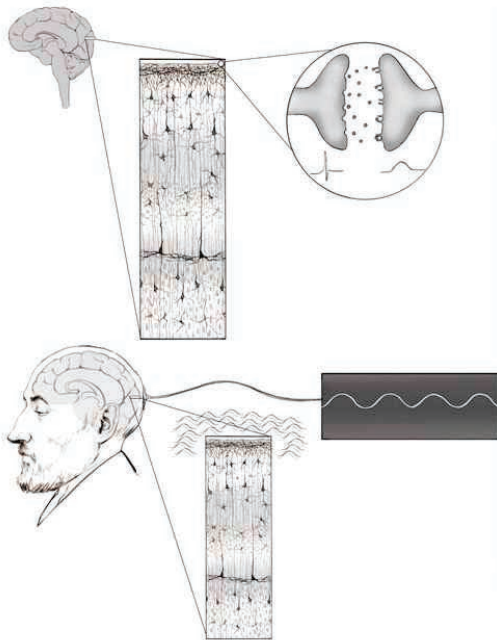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집중과 균형



Copyright © 2007 Pearson Education, Inc., publishing as Benjamin Cummings. modified by Lee



Images from backyardbrains.com
Modified by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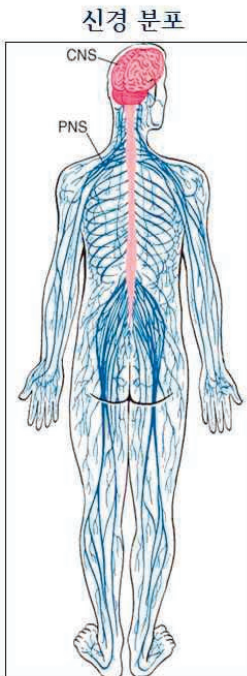
RHYTHMS OF THE MIND

Brain oscilla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ir frequency, amplitude and source. Although many types of wave may be coursing through the brain at any given time, certain types dominate during particular behaviours, suggesting some mechanistic li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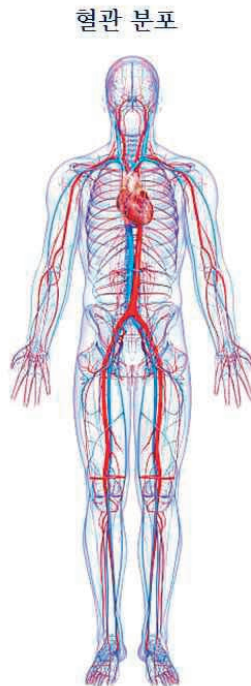
- Delta 0.5-4 Hz**
The slowest brainwaves are associated with deep, often dreamless sleep.
- Theta 4-8 Hz**
In the cortex of the brain, these are seen in young children and adults in a drowsy, meditative or pathological state.
- Alpha 8-13 Hz**
Arising in the occipital lobe, alpha waves are associated with wakeful rest with eyes closed.
- Beta 13-32 Hz**
These are associated with normal wakeful consciousness and concentration, and are suppressed during movement.
- Gamma 25-140 Hz**
Linked to normal visual consciousness and rapid-eye-movement sleep, these might help to decipher multiple sensory signals.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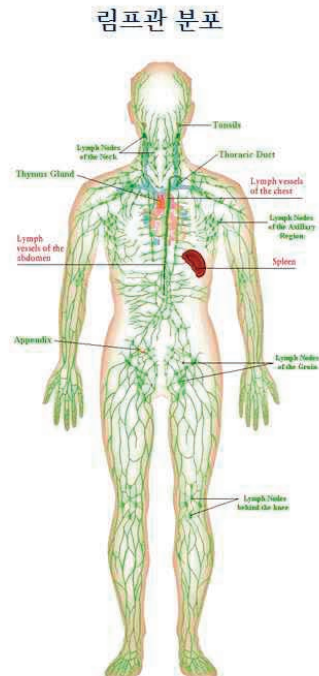
H. Marzbani, H. R. Marateb & M. Mansourian
Basic Clin. Neurosci. 7, 143-158 (2016)



Note: The Human B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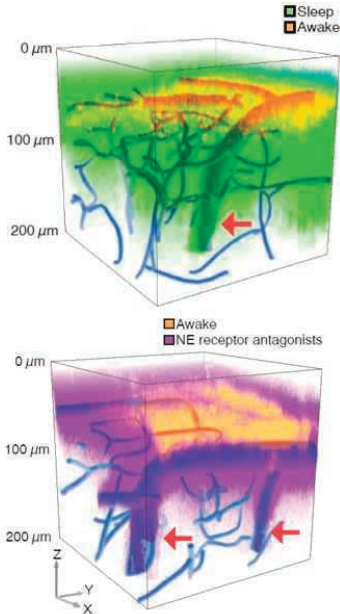


From istockphot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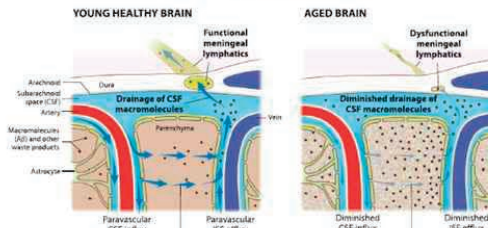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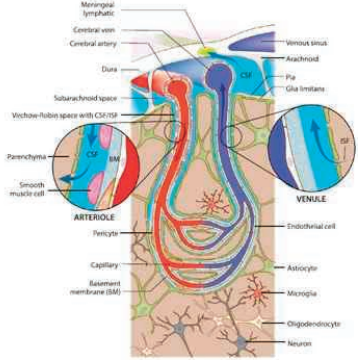
From cancerelltreatment.com

수면 중 뇌 대사물질의 제거



Xie L. et al., 2013, Science

림프관을 통한 뇌 대사물질 제거



Sandro DM et al., 2018, Neu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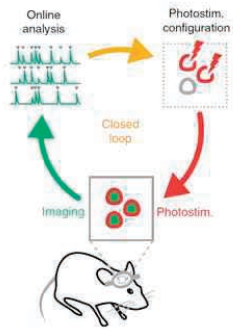
뇌과학 연구 기술

광유전학 기술 (Optogene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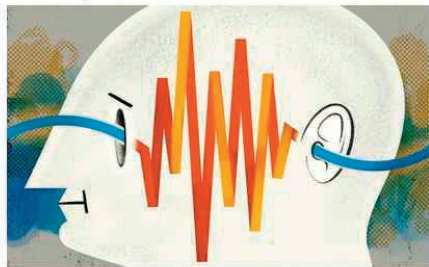
뇌심부 전기자극

(Deep brain stimulation)

뇌유사장기 (Organoid)



Zhang Z. et al., 2018. Nature Meth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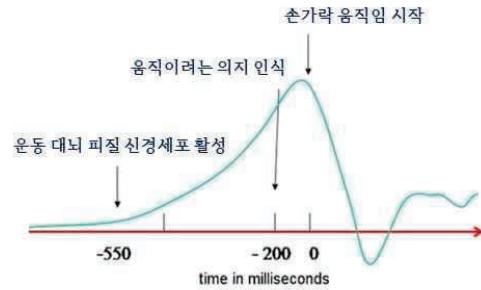


Anthony JM, et al., 2019. Cell Nature 555, 20-22 (2018)

뇌과학 연구 분야

- 신경가소성
- 신경재생
- 마음챙김
- 뇌신경철학

자유의지 (free will)



Benjamin Libet. 1985, Behavior and Brain Science
Benjamin Libet. 2002, Consciousness and Cognition



- 기술의 활용 범위와 가치 판단
- 뇌과학 연구를 위한 질문의 근원
- 질병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삶을 위한 길

토론자 발표 3

중도, 실천이 먼저다

- 팔정도와 명상과학을 통한 중도적 사회 가치 실현 -

미산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요약문

중도는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사성제, 팔정도로 표현되는 실천 체계와 12연기로 대변되는 연기법의 이론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두 번에 걸친 중도 포럼에서 충분히 진행되었고 이번에 발표할 논문에 잘 정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실천적인 입장에서 중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연기법을 중심으로 펼쳐진 교의가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팔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중도의 가르침으로 체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양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칭으로 과학화된 명상 실천 현황을 살펴보고, 물질 환원주의의 물질론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마음 환원주의의 관념론으로 머물지 않는 중도 실천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나아가 팔정도의 중도 실천이 어떻게 AI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를 명상과학의 입장에서 고찰할 것입니다.

제3회 중도포럼
중도와 과학 : 이 시대의 가치

**중도, 실천이 먼저다 :
팔정도와 명상과학을 통한
중도적 사회가치 실현**

KAIST 명상과학연구소
Center for Contemplative Science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 중도와 연기법 실천
- 『증지부』의 「깔라마 경」과 실천을 지향하는 열린 질문
- 연기법과 중도적 행복
- 『숫따니빠따』의 「최상의 행복경 Mahā Maṅgala Sutta」 행복의 3가지 차원
- 행복, 진리, 그리고 자비
- 명상과학의 작업가설적 정의
- 명상의 과학적 연구의 역사와 현황
- 마음챙김 명상의 보편화, 대중화 그리고 과학화
- AI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지능의 향상과 명상수련법
- 팔정도와 명상과학을 통한 중도적 사회가치 실현

2

■중도와 연기법 실천

3



■ 중도와 연기법 실천



우리가 성냥을 그으면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꽃을 초에 옮기면 촛불이 나타나겠지요.
촛불에게 물어봅시다.

“불꽃님,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불꽃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저는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나타날 조건이 충분하면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요.”

이것이 오고 감이 없는 본성의 진리입니다.

《죽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틱낫한 지음,
허문영 옮김, 나무심는사람, 2003.

6

▪ 『증지부』의 「깔라마 경」과 실천을 지향하는 열린 질문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당연히 미덥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미덥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깔라마들이여,

- ①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 ②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 ③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 ④ 우리의 경전에 써 있다고 해서,
- ⑤ 논리적이라고 해서,
- ⑥ 추론에 의해서,
- ⑦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 ⑧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 ⑨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 ⑩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7

세 가지 그릇된 견해와 연기법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3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어 서로 주장을 달리 하지만 인생에 있어 아무런 소득이 없다. 어떤 것이 셋인가.

첫째는 ‘사람의 모든 일은 일체가 다 숙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의 모든 일은 일체가 다 신이 만든 것이다’는 주장이며,

셋째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우연이다’라는 주장이다. ...중략...

저들의 주장에 대하여 나는 연기법을 깨달고 중생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자기를 만들어 가는 길이다.”

『중아함경』 3권 12경(대정장 권1, 435); A. I. 173(A3:61) 참조.

8

연기법과 “지금 여기”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미래는 미래대로 내버려 두자.
내가 너에게 현실을 통해 법을 설하겠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게 되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

M. II. 22; 『잡아함경』 14권 258경(대정장 권2, 100) 참조.

9

■ 연기법과 증도적 행복

“쾌락주의자는 순간의 노예로 살고,
성취주의자는 미래의 노예로 살게 되며,
허무주의자는 과거의 노예로 산다”

하바드대 행복학 명강사 탈 벤 샤허르

10

■ 「최상의 행복경 주석서」 행복의 3가지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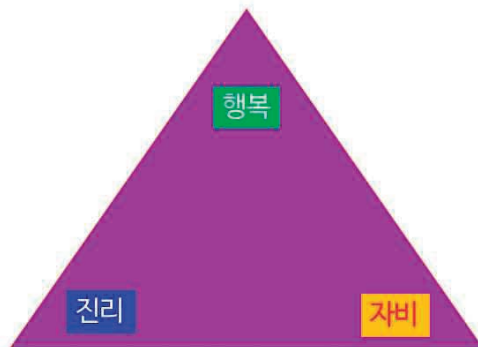
인간의 행복 (manussa-sukha),

천상의 행복(dibba-sukha),

열반의 행복(nibbana- sukh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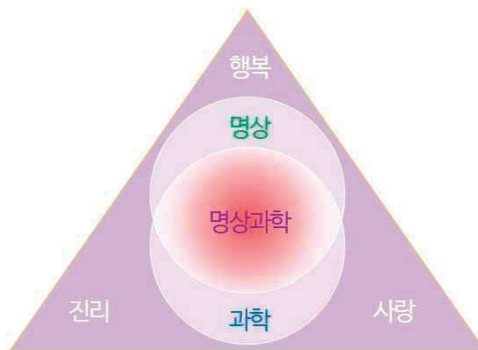
■ 행복, 진리, 그리고 자비



12

■ 명상과학의 작업가설적 정의

명상과학(Contemplative Science)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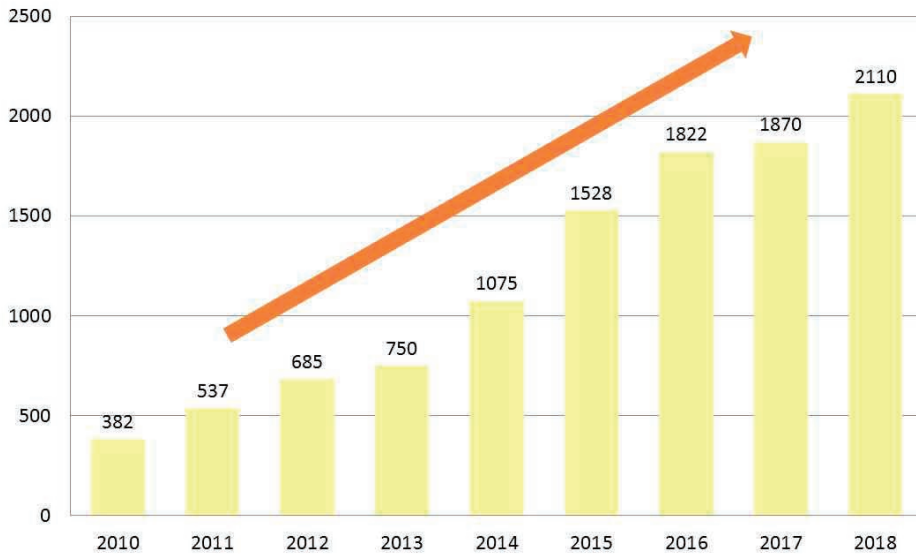
명상의 효과와 기전을
뇌신경 및 인지심리과학적 방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융복합적 새로운 학문

■ 명상의 과학적 연구의 역사와 현황



15

Mindfulness 논문 출판수 (총 12,587)



■ 마음챙김 명상의 과학화, 보편화, 대중화

● 미국과 영국 국회와 정부에서 마음챙김명상 권유와 장려

- 의료현장_건강 증진
- 비즈니스 현장_업무능력 향상 및 정신 복지
- 학교 교육 현장_인성교육 및 학업능력 향상
- 법조계 현장_법조윤리 확립, 대국민 서비스 개선, 스트레스 감소

17

The Mindful Politician: Why Tim Ryan is Promoting Mindfulness in Washington

BY [EDITOR-IN-CHIEF BARRY BOYCE](#)
APRIL 3, 2019



18



MINDFUL NATION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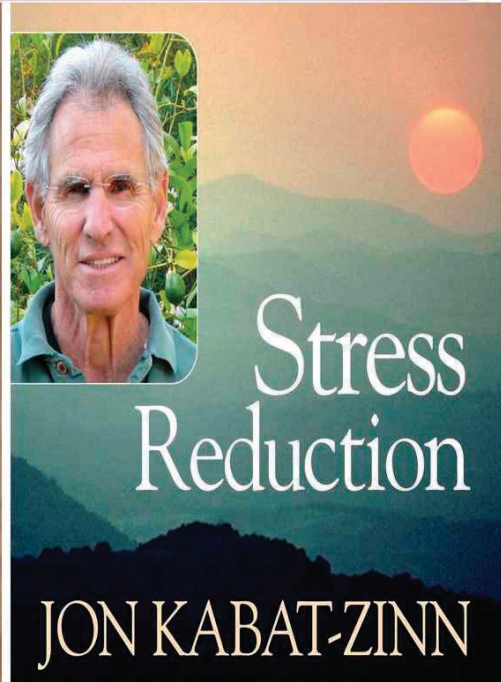
Report by the Mindfulness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MAP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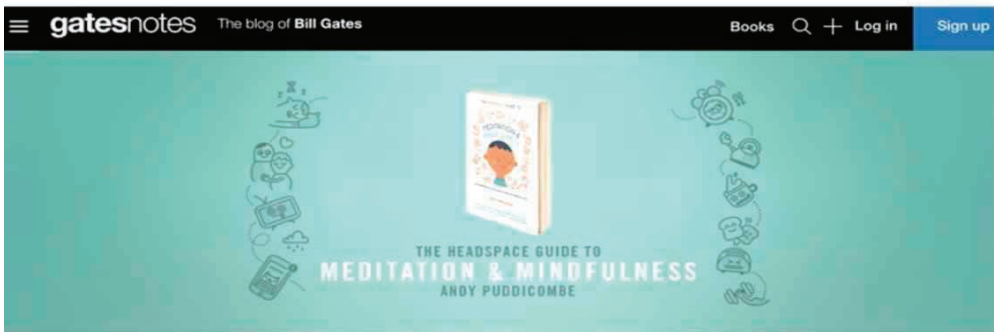
October 2015



The Mindful Nation Foundation, a non-profit organization, was inspired by U.S. Congressman Tim Ryan, author of the best-selling book, A Mindful Nation. Established in 2013

19





- 2174 SHARES
- 2 SHARES
- SHARE
- COMMENT
- EMAIL

Why I'm into meditation

By Bill Gates | December 3, 2018

I stopped listening to music and watching TV in my 20s. It sounds extreme, but I did it because I thought they would just distract me from thinking about software. That blackout period lasted only about five years, and these days I'm a huge fan of TV shows like *Narcos* and listen to a lot of U2, Willie Nelson, and the Beatles.

비즈니스 분야



학교 명상교육

Mindfulness in Education Network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미국 법조계와 로스쿨의 마음챙김 명상

미국 법조계와 로스쿨의 마음챙김 명상
(mindfulness meditation) 도입 동향과
한국 법조계의 그 도입 전망 –
'nowhere lawyer' 에서 'now-here lawyer' 로

변호사 金基大
法曹 2014. 2(Vol.689, pp.226~270)

26

■ AI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지능의 향상과 명상수련법

27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지음 | 송경진 옮김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공식 도서
2016 밀스트리브저널 경제연구원 화제의 신간
세계 경제연구원 추천 도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다보스포럼 '제4차 산업혁명' 최초 논의는 이 책에서부터다!

"전 세계 사회·산업·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는 시작됐다!"
— 클라우드 슈밥(세계경제포럼 회장)

새로운 인간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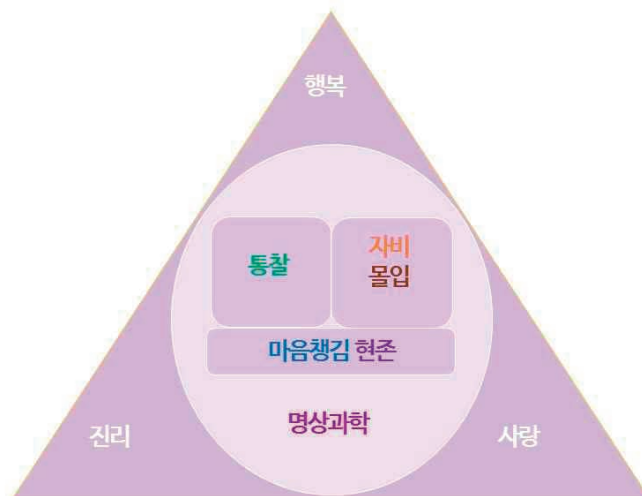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4가지 지능

- 맥락 지능 (contextual intelligence)
- 정서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 영감 지능 (inspired intelligence)
- 신체 지능 (physical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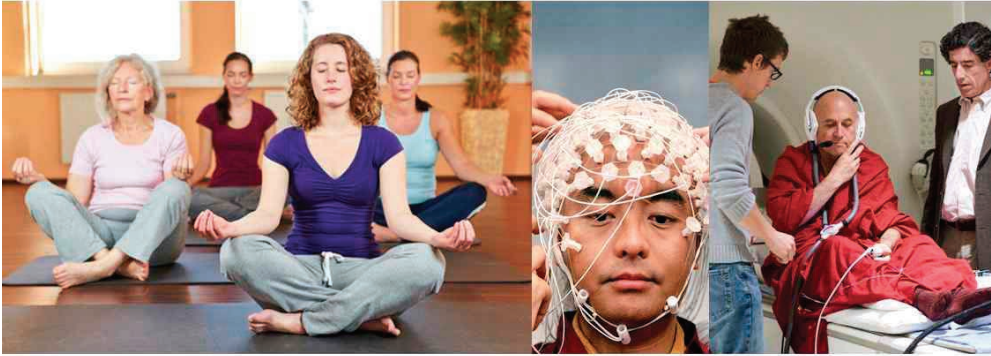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4가지 지능의 향상과 명상수련법



명상과학과 명상수련법



명상의 과학적 연구



- 동서양에서 오랫동안 전승 및 실천되어 온 명상의 정신적, 신체적 효과와 기전을 연구
- 뇌파, 호르몬 변화, fMRI, 심리 측정 도구 등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



Collaborative Knowledge Platform - 명상과학과 다영문 분야의 융복합 지식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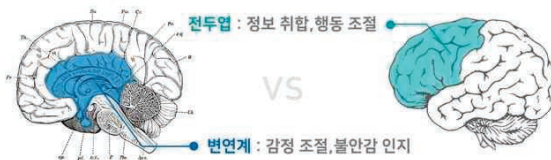
명상의 과학적 효과 검증



이완과 뇌의 휴식



강박 증상 완화



강박증은 변연계와 전두엽의 상호조절 문제로 인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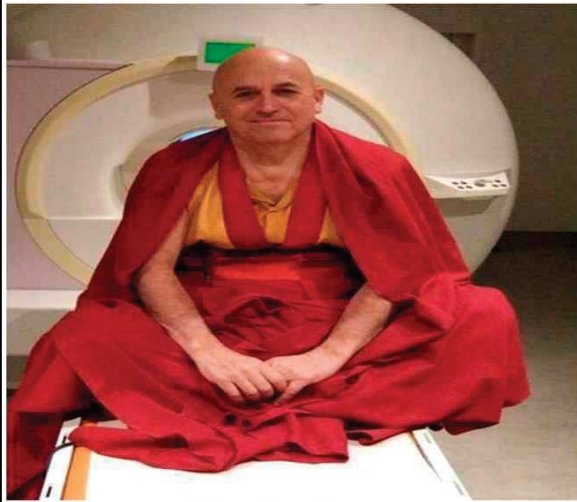
기억력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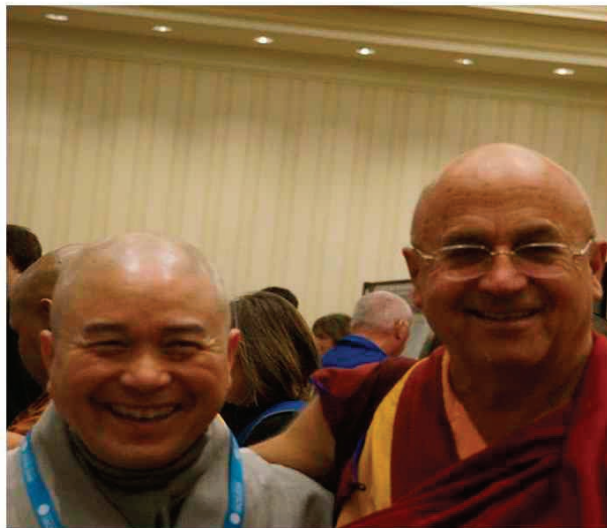
자비 명상의 신경생물학적 기전 공감 피로와 자비 피로



공감 피로(empathy fatigue)는 있을 수 있지만,
자비피로(compassion fatigue)는 있을 수 없음



Matthieu Ricard, a long-term meditation practitioner, after a brain scan.



■ 팔정도와 명상과학을 통한 중도적 사회가치 실현

■ 사성제_팔정도

중생이 살아가는 현실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
모든 고통은 원인들이 모여서 일어난다는 것,
중생이 직면하는 고통은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 길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모든 것이 괴롭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며,
괴로움의 원인이 쌍임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
괴로움이 소멸되는 진리를 알고 증득하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닦는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여덟 가지 방법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최상의 행복경」과 구체적인 팔정도 실천행

41

「최상의 행복경」의 구조

시작하는 계승 기원정사에 친신이 나타나 붓다에게 행복에 대한 법문을 청함

계승1 인간과 천신들은 행복과 안온을 원함. 최상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계승2 [1]어리석은 이를 멀리함 [2]현명한 이를 가까이함 [3]존경스러운 이를 공경함

계승3 [4]적당한 처소 [5]공덕을 쌓음 [6]삶의 바른 방향설정(서원)

계승4 [7]많은 배움 [8]다양한 예능을 익힘 [9]윤리적 규범 준수와 수련 [10]의미 있는 대화

계승5 [11]부모를 섬김 [12]자녀를 보살핌 [13]배우자를 돌봄 [14]일관성 있는 삶

계승6 [15]보시 [16]여법함 [17]친지를 보호함 [18]비난에서 자유로운 행동

계승7 [19]악함을 멀리함 [20]술을 절제함 [21] 부지런히 선법과 덕행을 닦음에 방일하지 않음

계승8 [22]공경함 [23]검손함 [24]만족함 [25]감사함 [26]적합한 때에 법문을 들음

계승9 [27]인내함 [28]온화함 [29]수행의 스승을 만남 [30]시의적절한 때에 법에 대해 점검함

계승10 [31]열심히 정진함 [32]정정한 삶 [33]사성제를 관조함 [34]열반을 성취함

계승11 [35]세상일에 동요치 않는 담담한 마음 [36]슬픔이 없이 안온한 것 [37]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움 [38]충만한 안정감

계승12 이와 같이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리라.

42

「최상의 행복경 Mahā Maṅgala Sutta : MMS」 과 구체적인 팔정도 실천행

◆ 조화로운 견해 : MMS 계송 2, 9, 10

- 어리석은 이를 멀리함, 현명한 이를 가까이 함
(좋은 도반들과 신행활동하기)
- 존경스러운 이를 공경함, 수행의 스승을 모시고 선지식 친견하여 바르고 조화로운 견해 세우기 (스승들께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마음수행 일지 쓰기, 자신의 고정관념 찾기)
- 사성제를 관조함, 궁극적 열반세계 실현함 (세간적인 바른 견해와 업의 법칙 이해하기, 무아의 바른 견해를 확고히 하기, 지각의 왜곡, 정보의 왜곡, 견해의 왜곡에서 자유롭기, 연기 맵 그리기)

43

◆ 조화로운 사유 : MMS 계송 3, 4, 8, 9

- 의미있는 대화, 적합한 때에 범문 들음,
(바른 의도 확립하기, 좋은 의도, 자비로 향하는 사유의 가치를 성찰하기, 습관화된 생각의 패턴 알아차리고 변화시키기)
- 스스로 바른 서원 세워 사는 것
(팔정도 발위문 독송하며 행복한 세상 가꾸기 서원하기)
- 존경과 겸손함을 길러가면서, 만족과 감사함의 마음 갖기.
(존경하는 분에 대한 감사함 표현하기,
“감사합니다_덕분입니다” 인사 생활화 하기
하트스마일 감사랑 무브먼트 실천하기, 감사일기 쓰기)
- 온화함(자비회사_사무량심 수행하기, 자비행 실천하기)

44

◆ 조화로운 말 : MMS 계승 4

- 유익한 언어생활 실천하기

<슬기로운 말을 위한 명상 발원문> 암송하기

거짓된 말 한마디가 삶을 헛되게 하고,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삶을 알차게 합니다.
허영에 찬 말 한마디가 근심과 두려움을 주고,
신념에 찬 말 한마디가 희망과 광명을 줍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삶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사랑이 담긴 자비의 말 한마디가 삶을 복되게 합니다.
결허한 말 한마디가 우정을 두텁게 하고,
덕 있는 말 한마디가 편안함과 넉넉함을 줍니다.
차분한 말 한마디가 고요함을 자아내고,
깊이 있는 말 한마디가 잔잔한 기쁨을 줍니다.
때에 맞는 위트 있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조리에 맞는 말 한마디가 지혜를 자아냅니다.

45

◆ 조화로운 행위 : MMS 계승 4, 7

- 악을 멀리하고 와 술 절제하기(좋은 일 실천하기,
중독성이 있는 삶의 습관 개선하기: 술 담배 끊기, 도박,
유해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 덕행을 쌓아가고 복을 짓기(승가와 이웃에게 보시바라밀
실천하기)
- 기술을 숙련하고 많이 배우며(직업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능
숙련하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통합적으로 공부하기,
붓글씨, 그림, 음악 등 취미 생활하기)
- 계율을 잘 지키고 늘 실천하기 - (5계와 십선법 실천하기)

46

◆ **바른 생계 : MMS 계승 3, 5, 6, 10**

- 배우자, 부모 자녀 잘 돌보는 것
(생계를 잘 일구어 가기, 가족에게 자주 감사 문자나 전화하기),
- 모든 일 정연하게 하기(생태, 환경, 생명 등 연기적 질서, 평화를 위한 노력)
- 배풀며 정의롭게 살고 있으며(연기, 중도적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친지를 보호하고 보살피나니
- 청정한 삶, 남에게 비난받을 행동 안하면서도, 비난하지 않기
(인간과 자연에 해가 되는 직업을 갖지 않기,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갈 기회를 뺏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기
팔정도를 실천하여 보살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 알맞은 곳에 살며 공덕 쌓기(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공덕행 실천하기)

47

◆ **조화로운 정진 : MMS 계승 7, 10**

- 부지런히 선법을 닦음에 방일하지 않음(잠재적인 번뇌의 일어남을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번뇌를 흘려보냄, 잠재적인 선한 상태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한 상태를 유지하여 확고히 함)
- 열심히 정진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감

48

◆**조화로운 마음챙김 : MMS 계승 9, 10, 11**

- 진지한 태도 갖춰 마음챙김 수행하기, 사성제 관조하기,
열반 성취하기

(4년치 수행 :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호흡으로 돌아오기, 감각과 느낌 바라보기, 주변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이롭고, 생기를 주는 치유적인 일들과 접촉하기, 두 번째 화살 쏘지 않고 흘려보내기,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이해의 씨앗을 심어 의식 깊은 곳에서의 변화 촉진하기, 5장애와 7각지와 4성제 깊이 성찰하기, 마음챙김 명상을 매일 실천하며 마음 쪼개보기 실습지 쓰기)

49

조화로운 삼매 : MMS 계승 11~12

세상의 온갖 일에 동요치 않고, 안온과 담담함이 충만하여서 슬픔과 욕심에서 자유로 어떤 경우에도 좌절치 않기(순풍 4가지와 역풍 4가지, 즉 8풍을 선지식으로 삼아 부동심 지키기_팔풍취부동 八風吹不動)

언제나 평온함 유지하기(호흡명상, 바디스캔 명상하기, 하트스마일명상 집중 수행 참가 후 지속적인 명상수행하기,)

50



행복마음 매트릭스 명상



마음챙김 명상과 자비명상의 치료적 기전



Heartsmile[®]

하트스마일명상 Heart-Smile Training(HST)



● HST(Heart-Smile Training) 프로그램

HST
Heart-Smile
Training

• 진정한 현존에 이르게 하는 행복명상의 덕목들(맑음과 향기로운, 편안함과 고유함, 따스함과 훈훈함, 풍요로움과 행복함) 중에서 따스함과 훈훈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고안된 자비명상

본 명상 따스하고 훈훈한 미소를 마중물로 하여 몸과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랑과 연민이 가슴 중심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를 체화하여 나누도록 하는 명상

하트스마일
무브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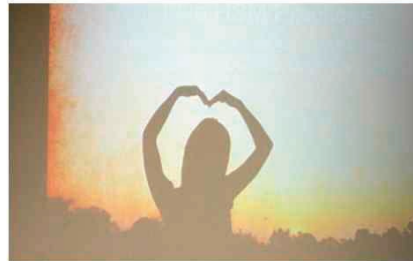
감사-사랑
무브먼트

보 조 명 상

감사-수용
명상

따기운스

소리명상





감사합니다.

고요한소리

붓다의 명상 · 붓다의 경 읽기 · 붓다의 책 읽기 모임 안내

	서울 사무실 (02-739-6328, 725-3408)	부산지부 (051-513-6650)	대구지부 (053-755-6035)	대전지부 (042-488-1689)
	오후 3시 뽀리어 공부			
월	둘째, 넷째(월) 오후 6:30 〈고요한소리〉 붓다의 책 읽기 셋째(월) 오후 6:30~8:30 붓다의 명상(BTN_박용표)	오전 11시 〈고요한소리〉 붓다의 책 읽기	오후 6시 붓다의 명상 및 요가	오후 7시 붓다의 명상
화		오전 10시 붓다의 명상	오전 10시~12시 〈고요한소리〉 붓다의 책 읽기	오전 10시 · 오후 3시 붓다의 명상
수	오후 1:30~3시 붓다의 경 읽기			개인 지도
목	오후 1:30~3시 〈고요한소리〉 붓다의 책 읽기	오전 10시 붓다의 명상		오후 7시 붓다의 명상
금	오후 1시~3시 붓다의 경 읽기			오전 10시 · 오후 3시 붓다의 명상
토	오전 10:30~오후 5시 윤문 첫째(토) 오후 2:30~5시 붓다의 명상(BTN_최순용)			개인 지도
일				오전 10시 붓다의 경 읽기

• **〈고요한소리〉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이름, 전화번호, 우편물 받을 주소, e-mail 주소를 〈고요한소리〉 서울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전화: 02-739-6328, 02-725-3408)

• 회원에게는 〈고요한소리〉에서 출간하는 도서를 보내드리고, 법회나 모임·행사 등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회비, 후원금, 책값 등을 보내실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006-01-0689-346

우리은행 004-007718-01-001

농협 032-01-175056

우체국 010579-01-002831

예금주 (사)고요한소리

마음을 맑게 하는 <고요한소리> 도서

금구의 말씀 시리즈



하나 염신경

현음 스님 옮김

《중부》 119경인 몸에 관한 마음챙김의 지침서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몸을, 요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대로, 작용하고 있는 대로 고찰함으로써 삼매와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다.

소리 시리즈



소리1 지식과 지혜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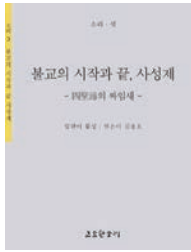
지식에 속하는 識과 想의 작용을 극복하고 갈애를 제거하는 지혜의 작용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



소리2 소리 빚질, 마음 빚질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세상만사를 범문으로 듣는 연습으로 보아야 하며, 구한말의 명창 이 날치 선생의 음악관을 비유로써 마음을 다루는 법을 설명한다. 나아가서 모든 문명이 왜 마음 다루기에 실패했는지를 밝히고, 불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까지 정연하게 설명해주시는 말씀.



소리3 불교의 시작과 끝, 사성제 - 四聖諦의 짜임새

말한이 활성 | 역은이 김용호

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에 감춰진 역동적 흐름, 정교한 짜임새, 구조의 진리성, 법과 도의 양축을 밝게 드러내 설명해 주는 책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사성제에 대한 기존의 타성적 이해에서 벗어나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소리4 지금 · 여기 챙기기

말한이 활성 | 역은이 김용호

팔정도야 모든 수행의 지침 내지 나침반이며, 인습적 교설이 아닌 실제적 수행의 적용과제로 다루어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서 수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념에 관하여 입체적 심층적 분석하고 있다. 독자들은 왜 ”지금·여기“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소리5 연기법으로 짓는 복농사

말한이 활성 | 역은이 김용호

복 농사를 짓는 데에는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복의 밭은 삼보三寶로 연기법에 대한 이해와 연기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태도요, 복의 씨는 팔정도의 서두인 정견正見으로 정직, 성실, 겸양을 지니는 것이다. 팔정도를 걷는 것이 복의 가꿈이다.



소리6 참선과 중도

말한이 활성 | 역은이 김용호

참선은 바른 자세로 상 높음을 그치고 마노로 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사띠 챙기기다. 자세부터 시작해서 경험 대상까지 중도로 일관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 참선 공부다. ‘그 험난한 흐름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신다. ‘나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느리게 지척거리지도 않았기에 건널 수 있었다.’



소리7 참선과 팔정도

말한이 활성 | 역은이 김용호

법의 핵심은 중도요, 팔정도이다. 우리는 팔정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띠(정념)를 닦는다. 계는 청정함이고, 정은 고요함이고, 혜는 밝음이다. 삼학을 구축한 것이 중도이다. 계·정·혜를 구축하라. 어떻게 구축하는가? 팔정도를 닦아라. 왜 팔정도를 닦아야 하는가? 십이연기를 관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소리8 중도, 이 시대의 길
말한이 활성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에 가끔 일어나는 류類의 변혁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대하고 심각한 변혁기이다. 인류의 생존이 지구의 존속과 연관된 이러한 대 위기의 변혁기를 감당해 내려면 진리 차원의 '신新 가치관'이 필요하다. 진리로서의 사성제, 그 핵심인 팔정도, 그 실천으로서의 중도(중중의 걸음)가 이 시대의 길이다.



소리9 오계와 팔정도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오계는 생명을 해치지 않기, 흠치지 않기, 성적 불륜을 행하지 않기, 그릇된 말을 하지 않기, 취하지 않기로 팔정도의 실천으로서 설해졌다. 바른 공부를 위해서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하고 오계는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팔정도를 걷는 일환이어야 한다.



소리10 과학과 불법의 융합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과학과 불법은 둘 다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세계를 보는 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학은 오근에 잡히는 감각 세계만을 대상으로 '어떻게'를 묻지만 불교는 제 육근인 의근에 두고 감각 세계를 넘어 법계와 진리를 대상으로 '왜'라고 묻는다. 불법은 '왜'를 묻는 반야에 입각하므로 과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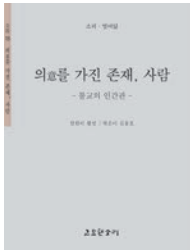
소리11 부처님 생애 이야기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부처님 생애는 해탈이 있고, 해탈로 가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법을 가르치셨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애로써 완벽한 시범을 보이셨다. 팔십 평생이 법 그 자체였던 것이다.



소리12 진선미와 탐진치
말한이 활성화 | 역은이 김용호

우리의 향상에 필요한 가치관인 진선미가 따로 떨어지면 선과 미의 상대성의 절대화로 인해 탐진치를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가치인 진선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바로 탐진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정혜를 닦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소리18 **의의를 가진 존재, 사람 - 불교의 인간관**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사람이 오온가합五蘊假合이라는 점에서는 동물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십이연기의 육처에서 법法을 대경으로 하는 의의를 설하시는데, 이 ‘의’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신다. 법을 아는 능력인 의가 있어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소리19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 정견正見**

말한이 활성 | 엮은이 김용호

팔정도의 첫 항목인 바른 견해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모든 현상이 구조적인 고통이며, 이를 벗어나는 길이 팔정도이다.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이해로 바른 견해를 세워야 팔정도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른 견해로 유신견을 벗어나고, 제법무아, 제행무상, 일체개고의 진실을 받아들이면 순조롭게 팔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소리20 **활성스님, 이 시대 불교를 말하다**

말한이 활성 | 대담 정목

부처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다. 불교는 중도의 큰 눈으로 이 시대를 보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이 소비문화를 끊임없이 추동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길잡이가 될 가르침을 경에서 찾아내 지침으로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뜻 번역’이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소육지족’이다.

법륜 시리즈



법륜1 **부처님, 그분 - 생애와 가르침**

뼈야닷시 스님 지음 | 정원 김재성 옮김

빠알리 원전에 입각해서 부처님 그분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그 근본 가르침을 요약한 책



법륜2 구도의 마음, 자유 - 깔라마 경

소마 스님 영역 | 현음 스님 옮김

외부의 권위·전통·다수의 추세 등에 따라 생각을 정하지 말고 자유로운 의문과 탐구의 정신으로 스스로 통찰력을 길러 나가도록 권장하신 부처님의 현장.



법륜3 다르마팔라 - 불교중흥의 기수

상가라크쉬따 스님 지음 | 류시화 · 이경숙 역편

어둠 속에 한 줄기 서광처럼 나타나 기독교화되어 가던 20세기 스리랑카에 불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마하보디 협회와 마하보디 저널을 창간한 대 원력 보살의 일대기



법륜4 존재의 세 가지 속성-삼법인(무상·고·무아)

오 에이치 드 에이 위제세끼라 지음 | 이지수 옮김

최고의 영적 완성을 성취하는 열쇠인 무상·고·무아의 삼법인三法印의 근본 진리를 설명한 본격적 해설서.



법륜5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 -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릴리 드 실바 지음 | 정원 김재성 옮김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이 각박한 현실을 공부의 장場으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항별로 차근차근하게 논술한 길잡이 글.



법륜6 옛 이야기 - 빠알리 주석서에서 모음

최윤정 옮김

옛날 남방의 '보통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던 정경을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보여 주는 감동적인 얘기들.



법륜7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빠야닷시 스님 지음 | 소만 옮김

우리를 유혹해서 노예 상태로 묶어 두려는 모든 악들을 버리고 선을 계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더 높은 고매한 삶의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수행 지침서.



법륜8 자비관

아차리야 붓다락키따 지음 | 강대자행 옮김

현대의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따metta만이 밝힐 수 있다고 한, 자비의 철학과 수행법을 밝힌 책.



법륜9 다섯 가지 장애와 그 극복 방법

냐나쁘니까 스님 편역 | 재연 스님 옮김

수행자의 마음을 덮어 항상 의지를 마비시키고 통찰력을 무디게 하는 다섯 가지의 수행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지침서.



법륜10 보시

비구 보디 역음 | 헤인 스님 옮김

불교의 중요한 덕목인 '보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해 본 책으로 누구나 잘 아는 듯이 여기고 있는 '보시행'을 네 사람의 불교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음미해 보는 동시에 불법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법륜11 죽음은 두려운 것인가

엠 오 시 월슈 지음 | 우철환 옮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북한 주제인 죽음,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간결하지만 이 문제를 기독교적, 유물론적, 불교적 관점에서 다룬 책.



법륜12 염수경 - 상응부 느낌편

냐나쁘니까 스님 지음 | 규혜 스님 옮김

이 책은 빠알리경 《상응부》 제4권 가운데 〈수상응품〉을 번역한 것이다. 느낌은 촉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그치는데 이 느낌은 세 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느낌, 이것을 일러 느낌이라 말하며, 팔정도의 수행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느낌의 소멸로 이르는 길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다.



법륜13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가 - 재생에 대한 아비담마적 해석

구나라뜨나 지음 | 유창모 옮김

윤회론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깊이 이해하고 다시 태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과 불교적 논리 체계를 탐구한 책이다.



법륜14 사리뿔따 이야기

냐나쁘니까 스님 지음 | 이준승 옮김

지혜 제일로 알려진 사리뿔따 존자의 생애를 짧지만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번 생애 고의 끝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며 본보기를 제시하여 주는 글이다.



법륜15 불교의 초석 - 사성제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재연스님 옮김

불교의 교리,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요약이며 불교의 초석이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모든 종교, 철학, 과학, 윤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넘어서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법륜16 칠각지

빠야닷시 스님 지음 | 전채린 옮김

이 책은 깨달음과 관련된 통찰이나 지혜를 이끌어 내며, 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일곱 가지 인자 즉, 칠각지七覺支를 설명하고 있다.



법륜17 불교 - 과학시대의 종교

우찬툰 지음 | 남기심 옮김

미국에 본부를 둔 '과학시대의 종교연구소'가 1958년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세계불교도우의회 우찬툰회장의 발표전문을 번역한 글이다. 불교가 현대 첨단 과학 지식과 하나도 모순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삶에도 과학이 줄 수 없는 빛을 던져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륜18 팔정도

비구 보디 지음 | 전병재 옮김

비구 보디 스님의 풍부한 철학적 사유와 수행으로 해석된 팔정도에 관한 글이다. 정견을 시작으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성팔지도(聖八支道)가 그를 실제로 종식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다.



법륜19 마라의 편지

아잔 뽀나담모 지음 | 김한상 옮김

인간들의 해탈을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을 마라의 군대들에 비유하여 현실감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



법륜20 생태위기 - 그 해법에 대한 불교적 모색

클라스 샌델 엮음 | 우천식 · 우광희 옮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서 불교 철학의 몇몇 측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집필한 불교의 자연관, 자연 접근방식, 환경 윤리 모색, 생태개발의 가능성을 통해 생태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륜21 미래를 직시하며

비구 보디 지음 | 우광희 옮김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붓다의 가르침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불교 내부의 개혁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비구보디 스님의 글

보리수잎 시리즈



보리수잎 영원한 올챙이

1 엠 오 시 월슈 지음 | 강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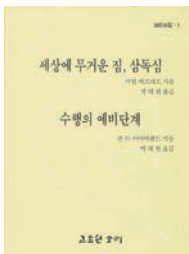
보리수 시리즈의 총론에 해당하는 글. 영원한 올챙이, 일상생활과 팔정도, 자기를 구출하기, 좌선하지 않고 선하는 법 등이 실림.



보리수잎 마음 길들이기

2 아잔 차 스님 지음 | 김용호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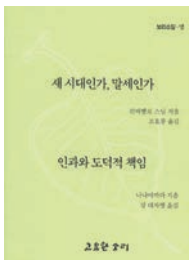
날뛰는 우리의 마음을 선정으로 이끄는 방법을 간명하게 설한 태국 아잔 차 스님의 법문.



보리수잎 세상에 무거운 짐, 삼독심

3 카렐 베르네르 지음 / 존 디 아이어랜드 지음 | 박태원 옮김

우리를 짓눌러 이 고해에 붙박는 '삼독심',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삼독심의 올바른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덧붙여 불교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 '수행의 예비단계'가 실려 있음.



보리수잎 새 시대인가, 말세인가 / 인과와 도덕적 책임

4 칸띠빨로 스님 / 나나야까라 지음 | 조효종 / 강 대자행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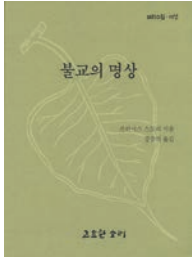
새 시대, 말세 두 극단으로 이해되는 격변기에서 불자들은 어떻게 생애에 임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의 생애를 엮고 있는 인과법과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인과와 도덕적 책임' 두편이 실려 있음



보리수원 거룩한 마음가짐 - 사무량심

5 나나쁘니까 스님 지음 | 강대자행 옮김

사랑함, 더불어 아파함, 더불어 기뻐함, 평온한 마음가짐을 지님으로써 거룩하고 신성한 주처에 머물게 되는 수행법, 이 수행의 궁극에는 훌륭하고 고결한 인품이 계발되면서 청정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나나쁘니까 스님의 사무량심과 해설.



보리수원 불교의 명상

6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정승석 옮김

불교 명상의 핵심인 수식관, 삼매수행, 위빠싸나(관법)수행, 자애관 수행법을 소개한 근본불교 수행 안내서



보리수원 미래의 종교, 불교

7 뵘 디스쿨 공주, 소마 스님 지음 | 김용호 옮김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건만 인류는 묵은 종교에 의지해 왔다. 현대 세계 속에 투영되어 더욱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종교가 있으니,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미래의 종교, 불교이다.



보리수원 불교 이해의 정교사론

8 레너드 볼렌 · 나타샤 잭슨 지음 | 김진옥 · 박승정 옮김

부처님의 일대교설 싸아사나sāsana와 실천 논리인 사성제, 팔정도의 해설서



보리수원 관법 수행의 첫 걸음

9 도로시 피건 지음 | 박태원 옮김

60대 후반의 재가 신자가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죽음을 선고 받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스리랑카에서 근본 불교에 귀의, 그 수행법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 환희를 경험하게 된 실천, 수행의 기록.



보리수일 업에서 헤어나는 길

10 카렐 베르네르 지음 | 김봉래 옮김

업의 법칙과 정념 수행의 연관성을 깨달음으로써 업에서 헤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설명하는 글.



보리수일 밧사 스님과의 대화

11 레너드 프라이스 지음 | 이경숙 옮김

자신은 왜 불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묻는 미국인 프렌티스에게 해주신 밧사 스님의 법문. 불교에 대한 몇가지 근본적 의문을 가시게 해주는 대화체의 글



보리수일 불교와 과학 / 불교의 매력

13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박광서 옮김

불교는 과학의 모든 원리를 수용하고 앞으로 그것이 나아갈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가르침임을 설명한 책



보리수일 물소를 닮는 마음

14 아잔 수메도 지음 | 강대자행 옮김

물소처럼 넉넉한 참을성을 기르는 가운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공부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수행의 길을 찾도록 돕는 책.



보리수일 참 고향은 어디인가

15 아잔 차 스님 지음 | 박용길 옮김

임종을 앞둔 한 노신도에게 사라져가는 육신을 지혜의 눈으로 바로 보도록 가르치는 아잔 차 스님의 법문.



보리수일 무아의 명상

16 케마 스님 지음 | 조효중 옮김

“...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정신적 스승도 일찍이 무아를 것처럼 역설했던 적은 없었다. 정말 부처님이 것처럼 강조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그 문제를 입에 올려 볼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는가?” - 본문 중에서



보리수일 수행자의 길

17 게세 완갈 역음 | 각목 스님 옮김

정신적 수행의 길에는 갖가지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충만해 있음을 통렬히 지적해 주는 옛 티베트 고승들의 간절한 수행 안내서.



보리수일 현대인과 불교명상

18 아차리아 붓다락키따 지음 | 이경숙 옮김

현대의 정신적 긴장과 마음의 때를 제거시키는 적극적 발걸음으로써 불교 명상을 가르친 공부 지침서.



보리수일 자유의 맛

19 비구 보디 지음 | 강대자행 옮김

마음속 자유의 영역을 더욱 더 넓히고 싶어하는 인류의 요청에 대한 부처님의 해답.



보리수일 삶을 대하는 태도들

20 루스 월슈 지음 | 전채린 옮김

이 글은 여섯 명의 실제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불교도적 눈을 통해서 관찰해 본 책.



보리수원 업과 윤회

21 나나떨로까 스님 지음 | 이진오 옮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운명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참으로 공평치 못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같은 의문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법에 비추어 설명한 책.



보리수원 성지 순례의 길에서

22 수잔 엘바움 주틸라 지음 | 김한상 옮김

고따마 붓다께서 살다 가셨고 또한 몸소 법법을 가르치셨던 곳 - 룸비니, 보드가야, 사르나트, 사왓티와 라자가하, 쿠시나라 - 유서 깊은 이곳에서 그 분의 가르침을 닦는 여행길에 올라보길 ...



보리수원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때

23 니나 뷔안 고르콥 지음 | 전채린 옮김

일상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의문과 슬픔을 당한 친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는 서간체의 글.



보리수원 정근 精勤

24 와보 스님 지음 | 재연 스님 옮김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간곡히 이르노라.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 몸 받게 만드는 탐·진·치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정근하기를 당부하는 내용.



보리수원 큰 합리주의

25 프란시스 스토리 지음 | 심영석 옮김

불교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믿으라고 강요한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와 닿는 이유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불교는 더욱 넓은 합리주의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보리수잎 오계와 현대사회

26 릴리 드 실바 지음 | 최부동지 옮김

오계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도덕률이다. 실제로 재가불자들은 삼귀의와 더불어 오계를 일상생활에서 지켜왔고, 또한 법답게 삶을 꾸려나가려면 반드시 이 오계를 다방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리수잎 경전에 나오는 비유담 몇 토막

27 나나샷따 역음 | 박은화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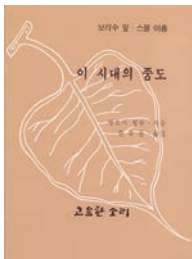
여기 실린 격언과 우화들은 BPS에서 출간한 보리수 잎 No. B97로 일본불교 전교협회에서 발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발췌한 것이다.



보리수잎 불교 이해의 첫 걸음 / 불교와 대중

28 나라다 스님 지음 / 나나떨로까 스님 지음 | 김한상 옮김 / 전채린 옮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유일한 길을 자세히 설명하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체계이다. 불교를 수행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충실하게 쓴 글이다.



보리수잎 이 시대의 중도

29 엠오시 월슈 지음 | 한유동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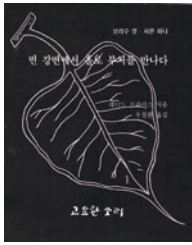
세상사 무슨 일이건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中道로서 대처한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상업주의 시대의 중도를 찾아내고, 중도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보리수잎 고(苦)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0 엘리자베스 애쉬비 지음 | 이금주 옮김

고(苦)의 여러가지 측면을 음미해보고 사람들이 고를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책.



보리수잎 빈 강변에서 홀로 부처를 만나다

31 L. 프라이스 지음 | 우철환 옮김

“불교는 광대한 가르침의 체계로서 서구권에 다가서고 있다”로 시작하는 배우이면서 작가로 활동하다가 출가한 레너드 프라이스 스님의 글로, 근본주의 불교, 미끼 달린 낚시바늘, 빈 강변에서 홀로 부처를 만나다, 사월과 십일월의 네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보리수잎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32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지음 | 전병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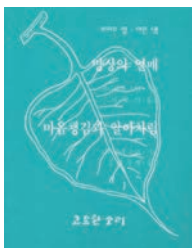
병들어 누워 있는 현실을 수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깊은 통찰을 해나가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간절한 가르침.



보리수잎 해탈의 이정표

33 붓다다사 스님 지음 | 서형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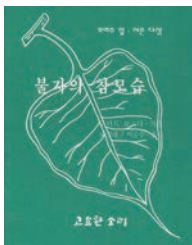
세간과 출세간, 열 가지 족쇄와 네 단계 성자, 열반의 경지 등 불교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사물의 본성을 보는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음미해 볼 만한 수행의 지침서.



보리수잎 명상의 열매 /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34 붓다다사 스님 지음 / 나나위라 스님 지음 | 서형석 옮김 / 강대자행 옮김

명상의 열매는 명상의 이익으로, 삶속에서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현법이익(現法利益)과 통찰력을 설명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고 알아차림의 대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잎 불자의 참모습

35 로버트 보고다 지음 | 하정래/이순주 옮김

불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불자는 불법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져 세상이 평안해지도록 노력하고, 불법이 살아서 일상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리수일 사후세계의 갈림길

36 라스뜨라빨 스님 지음 | 우철환 옮김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임종을 지킨 라스뜨라빨 스님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임종 시 보이는 다섯가지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존재의 재생이 달라지며 오직 통찰수행만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다.



보리수일 왜 불교인가

37 엠오시 월슈 지음 | 홍종욱 · 서형석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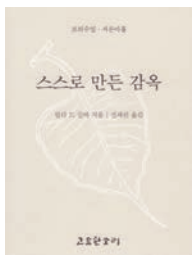
대승, 소승, 설일체유부, 상좌부 등 오늘날의 불교인식이 대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알리경전에 근거한 초기불교를 재인식하고 팔정도 중심의 근본불교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리수일 참된 길동무

38 웨라빠띠야 지음 | 서형석 옮김

〈참된 길동무〉, 〈진리의 나무〉, 〈법의 눈〉, 〈라홀라의 아버지 유산〉, 〈진리실현의 향상의 길잡이〉, 〈사람답게 사는 것〉,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술인 사념처〉, 〈자비희사를 통한 지혜의 길〉 등 일곱 편의 글이 정리되어 있다.



보리수일 스스로 만든 감옥

39 릴리 드 실바 지음 | 전채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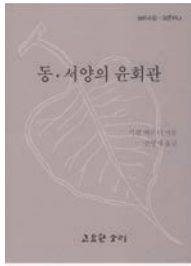
집착의 더미 오취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사설감옥으로 그것을 애착하고 그것에 거는 기대만큼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너에게 속하지 않는 오취온은 놓아버려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리수일 행선의 효험

40 우 실라난다 스님 지음 | 우철환 옮김

불교수행의 목적과 사물의 본성인 무상, 고, 무아를 파악하기 위한 점진적 수행과정으로 행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일 동서양의 윤회관

41 카렐 베르너 지음 | 전병재 옮김

재생이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고대인들 사이에서 신앙화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그래서 재생의 개념이 서구인들에게도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헤드크레톤의 “재생에 관한 동서명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 시인, 작가들의 재생에 대한 믿음과 발언 내용이 실려 있다



보리수일 부처님이 세운 법의 도시 - 밀린다왕문경 제5장

42 아이 비 호너 영역 | 전채린 옮김

기원전 2세기 후반 인도의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스님 사이의 문답을 담은 책 《밀린다왕문경》 제5장의 축약본으로 훌륭한 도시에 비추어 부처님의 법의 도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일 슬픔의 뒀안길에서 만나는 기쁨

43 아이야 메다난디 지음 | 강대자행 옮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 피해자 가족인 비구니 아이야 메다난디의 “당하는 죽음과 챙기는 죽음”이라는 법문 내용으로 잔인한 죽음 과정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것들의 본성과 생겨남과 끝남과 끝남에 이르는 길을 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리수일 출가의 길

44 게오르게 그림 지음 | 묘주스님 옮김

독일 초기 불자 중 한 사람인 게오르게 그림의 저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성과 명상의 종교”에서 발췌한 글로서 ‘출가라는 승려의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



보리수일 불교와 합리주의

45 사나트 나나약까라 지음 | 이순주 옮김

칼라마경을 근거로 하여, 많은 서양 학자들은 불교를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질문하기를 권하는 합리적 종교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칼라마인들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을 읽어야 하며 이것을 불교 일반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공부 과정의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에 의지해야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보리수원 학문의 세계와 윤희

46 란시스 스토리 · 디. 디. 피. 나나악까라 지음 | 민병현 · 안진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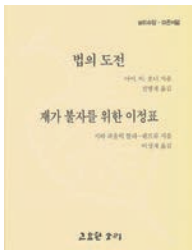
윤희는 상대적 진술이므로 무위법이라는 절대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사변의 상대성을 떠나야 하며, 유전학에서의 불완전한 부분을 불교의 업이론으로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원 부처님의 실용적 가르침

47 존 디 아이어랜드 지음 | 전채린 옮김

불교의 핵심사상인 사성제의 궁극적 이해인 열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님의 다양하고 단계적인 실용적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보리수원 법의 도전 / 재가불자를 위한 이정표

48 I. B. 호너 지음 / 시마 파울릭 뵐레-렌프루 지음 | 전병재 옮김 / 이성재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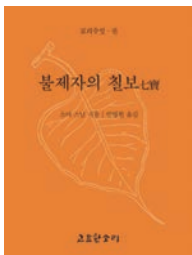
〈법의 도전〉, 〈재가 불자를 위한 이정표〉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공유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원 원숭이 뗏 이야기

49 페트르 카렐 온틀 지음 | 우철환 옮김

욕심으로 대상을 움켜쥐면 고통이 발생한다는 사성제의 진리를 원숭이를 포획하는 뗏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놓아버림이 유일한 해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보리수원 불제자의 칠보七寶

50 소마 스님 지음 | 민병현 옮김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들의 재산은 법에 대한 확신, 계행, 부끄러움, 두려움, 배움, 배품 그리고 바른 견해이다. 불제자는 확신을 가지고 계행을 닦아 고쁨을 멀하게 이끌어주는 팔정도를 닦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바른 견해를 지녀 무상無常, 고쁨, 무아無我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통해서 지혜가 굳건히 확립된다.

단행본



붓다의 말씀

나나뎨로까 스님 엮음 | 김재성 옮김

이 책은 불교의 핵심적 내용들인 사성제, 팔정도를 중심으로 삼법인, 연기설, 오온설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수행의 지침서로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